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123@gmail.com

2009. 9

통권 159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INDONESIA ^{1st} BUILT-IN DIGITAL TV

인도네시아의 Digital 시험방송은 2008년 8월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7개 방송사에서 Digital 시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LG의 Digital 기술은 별도 장비 없이 Digital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Built-in(디지털 튜너 내장형) Digital TV를 인도네시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2009년 6월에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영방송사, 민영방송사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Built-in Digital TV 출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선명한 화질, 풍부한 음질, 다양한 편의 기능을 인도네시아 최초의 LG Built-in Digital TV를 통해 즐기실 수 있습니다.

www.lge.com/tv



55LH50YD / 47LH50YD

협력사:



KONSORSIUM
TV DIGITAL
INDONESIA



이제 10월부터 자카르타에서 서울로 가는 여행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최신 좌석에서 즐기는 주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넓은 평면 좌석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는 여러분께 가장 편안한 여행을 약속 드립니다.
여행 그 이상의 특별함, 대한항공에서 만나보세요.



당신이 꿈꾸던 완벽한 휴식

대한항공 Prestige Sleeper Seat가 드리는 휴식과 여유.
버튼 하나로 연출되는 완전평면 침대형 좌석, 와이드 LCD 모니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세상으로 초대하는 AVOD 시스템까지,
내리고 싶지 않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 Prestige Sleeper Seat 공식 홈페이지 <http://newseat.koreanair.com>
* Prestige Sleeper Seat는 현재 한정된 노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접착력으로 평가됩니다

접착력의 작은 차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연구개발해 온 동성화학 신발용 접착제는

신발의 기능성, 생산성, 상품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줍니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특별해야 하는 신발용접착제

신발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착화시에는 인장, 굴곡, 복원을 무수히 반복하며 또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됩니다. 동성화학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특별해야 하는 신발용 접착제 품질향상을 위해 20여년간 꾸준한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신발용 접착제 분야 기술인재들의 풍부한 경험과 무한한 연구 개발의지, 철저한 현장테스트, 고객우선의 서비스정신이 창출하는 기술의 차이를 접착력으로 경험하십시오.

- 다양한 소재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 강력한 접착으로 놀라운 고정력을 발휘합니다.
- 작업성이 우수하고 일광노출시 변색이 적습니다.
- 물, 기름, 고열 등 갖가지 환경에 저항성이 강합니다.

Dongsung

NSC Ltd.

A Member of the ICI Group

PT. DONGSUNG NSC

PO.BOX.No.315 Tangerang INDONESIA

Telp. (021) 591 8620 (Hunting), Fax. (021) 591 8624, 591-8915

생산품목: ■접착제 ■폴리우레탄수지 ■함성피혁용 표면처리제
■특수도료 ■접착도료 ■제지용약품 ■유화제 ■폴리올 ■의료부외품

HYUNDAI TRUCK & BUS



KotyBus
KORINDO MOTORS

Berjelajah Seru Bersama Koty !



**HD MIGHTY
TRUCK**

125PS
TURBO - CHARGED INTERCOOLER
EURO II

 **KORINDO MOTORS**

CONTACT : (021) 596-0445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원고 모집 기한 : 12월 15일 까지

인니 교민사회는 어느덧 4만명 규모라는 최대 외국인 교민사회로 성장해 직간접적으로 교민사회내에서 또한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밀접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니사회에 한국인의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공공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인이 가담한 소주밀수와 불법유통이 인니 당국에 적발되어 우수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되는 등 한인사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글리코리안의 모습은 세계 어느곳이든 존재합니다. 어글리코리안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꼭 심성이 어글리 해서는 아닌 듯 합니다. 자국문화 우월의식, 타문화 이해 부족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해외 동포사회와 현지국과의 불협화음이 곧 '어글리 코리안'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교민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짝더라도 꼭 지나가는 여정이며 그래서 꼭 넘어서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인뉴스는 교민들과 함께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라는 주제로 해결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교민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주제 : 어글리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2. 모집기간 : 2009.7.10 ~ 2009.12월 15일까지
3. 대상 : 인도네시아 거주 교민
4. 원고분량 : A4 용지 4매 내외
5. 형식 : 자유
6. 발표 : 한인뉴스 지면
7. 시상일자 : 2009. 12월 중

8. 시상내역 : 대상 1인, 우수상 3인, 가작 5인, 참가상.
(대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최신식 디지털 카메라를 상품으로 드리고 한인뉴스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9. 보내실곳 : Haninnews123@gmail.com
10. 문의처 : 한인뉴스(Tel : 521-2515)
11. 담당자 : 김영민 편집위원 (HP :0818-916-566)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여 방법

- 가. 회원증 사본 제출
-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이 번 호

알립니다

한인뉴스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홈페이지

www.innekorean.or.id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일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社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34



48



38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창간 1996년 7월 15일

팩스: (021) 526-8444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발행인: 승은호

haninnews123@gmail.com

편집인: 조규철

http://www.innekorean.or.id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10 한인사회 소식

- 광복의 감격과 교민 축제
- 광복절 행사 이모저모
- 광복절 경축 찬조 리스트
- 인니관세청 & 한인무역업체 통관·물류 해결 본격화
- 동남아 '韓商' 한자리에 모였다.
- 코린도 이종영 부장, 국무총리상 수상
- 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결성
- 봉제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 골프대회 개최
-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교민들 조문 이어져
- 전통의 향기 심은 김명지 선생 한국 귀국
- 인니 정부, 한국어강사 연수과정 도입
- 도처고향 출판기념행사
- 대한항공, 자카르타 노선에 최첨단 항공기 투입



30 건강칼럼 자연산 전해질 음료 스망까

32 공항 입·출국 시유의 사항

34 시사포커스 14 오적(五賊)과 의적(義賊)

38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39 현장르뽀 한글을 배우는 바우바우 짜아짜아 族

43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슬라웨시, 문명을 기부하는 까장족

46 짹막인터뷰 도처고향 기획 손인식 선생

48 중국·중국인을 본다 - 중

최고제품이란 없다. 어제보다 나은게 최고

52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55 제8차 세계한상대회 등록 안내

56 한국말로 말해요 데아니스

58 유춘강의 긍정칼럼 엄마, 시대차이나!

60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단체협약 주요 쟁점 사안-3

64 김은미 편집위원의 이달의 추천도서

65 경제 리포트

68 MOVIES

70 BOOKS

72 생활정보 가이드

76 9월 공지사항





광복의 감격과 교민 축제

매년 한인사회내에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교민들이 참가하여 뜻 깊은 하루를 보내는 날이 바로 광복절기념 행사이다. 올해도 한인회는 지난 8월 15일(토요일) 오전 7시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광복절 경축기념식, 교민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교민들이 후원해준 많은 찬조물품들을 행운권 추첨으로 내놓아 즐거운 축제한마당 열고 또한 64년전 되찾은 조국의 광복의 감격을 전 교민들과 함께 기념했다.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교민식당들에서 후원해온 도시락으로 즐거운 점심 시간을 보낸 교민 수백여명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KKS)의 강당에 모여 조국광복을 위해 산화하신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광복의 뜻을 새기는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은 노예범씨의 사회로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대통령 경축사, 한인회장 인사말,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폐회 순으로 거행됐다.

김호영 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 대독하고 대통령의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에 관한 국정의지를 천명했다.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건국 후 우리가 일궈낸 기적의 역사를 평가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을 담았고 특히 대

북정책에 있어서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시금 강조하는 골자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교육, 제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혔다.

승은호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광복절을 선열에 대한 추모 및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스스로 열강의 반열 즉 강한 조국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당면과제인 통일이 현재 미,중,러,일 등 열강의 이해관계속에 얽혀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는 각 영역에서 조국을 선진국의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목적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교민사회가 되길 바랐다.

이어 김재유 한인회 수석부회장의 선창으로 자리한 교민들과 만세 삼창과 JKKS 어린이합창단의 기념공연을 끝으로 기념행사를 마쳤다.



한인사회 소식

(A조), 김신(B조), 유혜영(여자) 씨가 각 부문의 우승을 거머쥘다.

행운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온 행운권 추첨이 이날 행사 막바지에 있는 골프대회 시상식 사이사이에 있었다. 자카르타-인천 왕복 항공권 5장, LCD-TV, 고급핸드폰, 상품권 등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행운상품들이 주인공을 기다렸다. 행운 번호가 안내자의 목소리로 울려 퍼질 때마다 환호와 아쉬움의 표정이 엇갈렸고 추첨 내내 미리 받아든 행운권번호를 재차 확인하는 교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오후 5시까지 계속된 금번 행사는 끝까지 참여한 교민들이 JIKS 운동장에 걸린 '경축 제64회 8.15 광복절'이 쓰인 박을 터트리는데로 마감되었다.

흥겨운 놀이마당과 축구결승

JIKS는 우리 교민 아이들에게 배움을 전달하는 교육의 전당이 가장 큰 존재이지만 하지만 한인사회의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교민사회의 대단한 서포터(?)이기도 하다.

금번 광복절 행사에도 교민사회는 어김없이 JIKS 곳곳의 장소와 교사와 학생들의 대단한 지원을 받았다. 기념식 전후 JIKS 교정 곳곳에서는 JIKS 교사들의 전두지휘하에 열린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단체줄넘기, 엄마와 함께하는 2인 달리기 등이 열렸고 한달여간 예선을 거쳐 올라온 땅그랑 FC 팀과 아라리오 팀의 결승전도 벌어졌다.

JIKS 교정 곳곳에는 광복절 행사 참여를 위해 모처럼 만에 탁트인 공간에 삼삼오오 나들이 나온 교민 가정들의 즐거운 모습들이 보였고 행운권 추첨시간을 기다리는 교민들의 기대감이 물어났다.

수백명의 교민이 관중으로 자리한 가운데 열린 축구결승전은 시종 손에 땀을 쥐는 듯한 막상막하의 접전으로 2:2로 전후반을 마쳤고 이어진 PK 승부차기에서 한골 한골 들어갈 때마다 서포터즈들의 큰 환호로 지원사격을 받은 땅그랑 팀이 3:2로 아라리오 팀을 누르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축구결승 사이사이 흥을 돋군 '한바패'의 풍물공연도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한바패 공연에 UNAS 한국어과 학생들이 동참해 한달여간 같고 닮은 풍물실력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나이스~샷! & 슛~골인!, 행운권 추첨

150여 교민이 참가한 연 중 최대 오픈 골프대회가 자카르타에 위치한 할림라마 골프장에서 개최됐다. 이른 아침 7시 Tee-Off로 시작된 골프대회는 지난해 대회에 다르게 여자부문이 새로이 포함되었고 남자부문도 핸디캡을 기준으로 A,B 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막힘이 없이 순조롭게 흘러간 골프대회 곳곳에선 나이스 샷, 굿 샷이 울려 퍼지며 교민간의 우정과 친목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금번 골프대회에서 김기필 씨가 72타(34/38)로 메달리스트의 영예를 안았고 양승식

광복절 기념 골프대회 시상자

남자 부문

전체:

메달리스트: 김기필 34/38/72

Longest: 이성철 261m

Nearest: 조광호 1,17m

A조:

Winner: 양승식 38/37/75

First Runner: 김정훈 38/40/78

Second Runner: 이철훈 42/39/81

B조:

Winner: 김신 45/42/87

First Runner: 김경태 43/41/84

Second Runner: 이상근 47/42/89

여자 부문

메달리스트: 유혜영 42/45/87

Winner: 송현경 44/47/91

First Runner: 권예희 47/51/98

Second Runner: 곽명선 50/49/99

Longest: 박순금 210m

Nearest: 최희순 5,2m

광복절 행사



경건하게 치러진 광복절 기념행사



외국인도 순국선열 묵념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맑고 깨끗한 화음으로 한인사회 각종 행사를 빛내주고 있는 JIKS 어린이 합창단

축구 결승 사이사이 흥을 돋우고 있는 풍물패 '한바패'



시원한 음료수로 교민들의 무더위 갈증을 식혀 준 하나은행 가족들

이모저모



골프대회의 꽃 여자부문 참가자들



광복절 오전 교민 150여명이 모여 경축 골프대회를 가졌다.



땅그랑 팀과 아라리오 팀의 축구결승에 앞서 김호영 대사와 승은호 한인회장이 선수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있다.

군기 팍팍 잡힌 보고르 한인회 회장단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골프대회 남녀부 각각 우승을 차지한 교민들

서울 왕복항공권 행운의 주인공

제64주년 광복절 경축 찬조 리스트

〈제64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정성어린 후원과 찬조에 협조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과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배상 -

번호	성명	찬조품		
		회사명	상품명	수량
1	승은호	코린도 그룹	고급 디지털 카메라	1 대
2	강성원	JR Salon	사우나 이용권	4 매
3	강주석	PT. Serim Indonesia	CD/DVD Player	1 대
4	강주석	PT. Serim Indonesia	브랜더 (StabMixer)	1 대
5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상품권	Rp. 200만
6	강호정	솔 한의원 / 솔 진생 코리아	상품권 (Rp. 100만)	3 매
7	곽삼섭	PT. Bosaeng Jaya	상품권	Rp. 200만
8	구자성	일요신문	상품권	Rp. 100만
9	김강	고주몽	식사권 (Rp. 50만)	4 매
10	김광현	PT. ASOKA	상품권	Rp. 100만
11	김남진	PT. Haengnam Sejahtera IND.	20 PCS 디너 세트	3 Set
12	김두련	미원	클로렐라	5 Set
13	김문호	PT. Dada Indonesia	모자	152 개
14	김병권	KOTRA	자개보석함	1 개
15	김병철	PT. Misung Indonesia	대형 냉장고	1 대
16	김상태	자연으로	골프공	5 Box
17	김성대	PT. Samick Indonesia	어쿠스틱 기타	2 대
18	김성대	PT. Samick Indonesia	홀인원 - 피아노	1 대
19	김송정	PT. Unicon Indo Mesin	핸드폰	1 대
20	김영만	한 인니 석유주식회사	상품권	Rp. 200만
21	김우재	(주) 무궁화 유통	무궁화 상품권	Rp. 300만
22	김재유	PT. Dong Sung Indonesia	LCD TV 26"	1 대
23	김평수	토박	식사권 (Rp. 50만)	4 매
24	남기창	권명희 북국	식사권 (Rp. 20만)	20 매
25	노예범	PT. Sam Putra Inti	핸드폰	1 대
26	박진원	아름다운 병원	진료권 (Rp. 50만)	4 매
27	박헌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핸드폰	1 대
28	박훈규	부미관광	물리아 숙박권	1 매
29	배도운	Doosan Cipta Busana Jaya	핸드폰	1 대
30	배상경	PT. Jambi Resources	디지털 카메라	1 대
31	배정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핸드폰	1 대
32	서영률	PT. Pratama Abadi	디지털 카메라	3 대
33	송숙	굿딜	흔들 의자	1 개
34	송숙	굿딜	거울	1 개
35	송창근	PT. KMK Global Sports	핸드폰	1 대

번호	성명	찬 조 품		
		회사명	상품명	수량
36	송현경	You & Me Salon	리프팅 4회 이용권	1 매
37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디지털 카메라	1 대
38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홀인원 - Full HD LCD TV 52"	1 대
39	신창우	아시아 진주 (창립18주년)	남양 진주 팬던트	1 점
40	안상영	Daehwa Leather Lestari	상품권	Rp. 200만
41	안선근	U.I.N University	상품권	Rp. 100만
42	안홍제	PT. Kolon Ina	상품권	Rp. 100만
43	양영연	PT. Bosung Indonesia	쇼핑백	200 개
44	엄상배	로템투어	상품권	Rp. 100만
45	엄석준	뉴월드 메디칼 크리닉	상품권	Rp. 100만
46	윤승철	삼성전자	MP3	2 대
47	윤승철	삼성전자	홈시어터	3 대
48	이경일	SK Energe	상품권	Rp. 200만
49	이기주	LG전자	LCD 모니터	2 대
50	이기주	LG전자	DVD Player	2 대
51	이민재	우리은행	남자 골프장갑 + 토시	140 Set
52	이민재	우리은행	여성 양손골프장갑	20 Set
53	이상일	PT. U I B	상품권	Rp. 100만
54	이승민	YSM & Partners	상품권	Rp. 100만
55	이종후	Sung Won Indonesia	인형	180 개
56	이준하	PT. Daelim Indonesia	양식기	3 Set
57	이중기	마포식당	식사권 (Rp. 25만)	4 매
58	이진수	PT. Sung Bo Jaya		
59	이진호	PT. Jin Young	진영 삼봉나와	3 Set
60	이찬의	Kideco Jaya Agung	LCD TV 40"	1 대
61	이호덕	Royal Sumatra	샌드	1 개
62	임연식	임 테일러	양복	1 벌
63	장윤수	가호 레스토랑	스망기 지점 / 골라빠가딩 지점 식사권 (Rp. 50만)	각 2 매
64	장주현	PT. Inko Prima Utama Jaya	상품권	Rp. 100만
65	장천수	하나투어	물리아 숙박권	2 매
66	전민식	PT. Powertech Indonesia	디스펜서	1 대
67	전성현	Elga 포토 스튜디오	스튜디오 이용권 (Rp. 100만)	2 매
68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디지털 카메라	1 대
69	조성국	LIG	우드	1 개
70	조종수	외환은행	디지털 카메라	1 대
71	주석찬	대교 인도네시아	태극기 액자	25 장
72	차상만	PT. Hankook Ceramik	Zen & Rock (김치 및 찬기 밀폐용기)	3 Set
73	최재경	대한항공	자카르타/인천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2 매
74	최재경	대한항공	자카르타/인천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	1 매
75	최재경	대한항공	홀인원 - 자카르타/인천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	1 매
76	최재경	대한항공	부채 500개, 막대풍선 300개	
77	최창식	하나은행	음료수	2000 개

광복절 찬조리스트

번호	성명	찬 조 품		
		회사명	상품명	수량
78	최창식	하나은행	디지털 카메라	1 대
79	한현봉	보고르 한인회	핸드폰	1 대
80	홍기호	PT. Aurora Int' l Co.	인형	60 개
81	Arif	Garuda Indonesia	한국 왕복 항공권	2 매
82	Jongkie	Hyundai Mobil Indonesia	홀인원 - AVEGA G LIMITED	1 대
83		가나 레스토랑	식사권 (Rp. 20만)	5 매
84		눈사랑 안경원	상품권 (Rp. 50만)	4 매
85		동인 식당	식사권 (Rp. 30만)	5 매
86		민주 평통 서남아 협의회	핸드폰	1 대
87		뷰티샵	사우나 이용권 (10회)	10 매
88		시티서울	식사권 (Rp. 50만)	4 매
89		클레오 파트라	1년 회원권	2 매
90		플라워 이벤트	꽃바구니 교환권 (Rp 30만)	5 매
91		한솔	식사권	Rp. 200만
92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차상	1 개
93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상품권	Rp. 250
94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디너세트	1 개
95		Damai Indah Golf	4인 골프이용권	1 매
96		Fourseason Hotel	주말 숙박권	1 매
97		Fourseason Hotel	마사지 이용권	1 매
98		Gading Raya Padang Golf & Club	4인 골프이용권	1 매
99		Hotel Mulia	숙박권 / 식사권	각 1 매
100		Intercontinental Hotel	주말 숙박권/JAVA Restaurant 일요일 브런치 2인식사권	각 1 매
101		Padang Golf Modern	USB Warmer 커피잔	5 개
102		PT. Patra Wahana Kridatama	1인 골프이용권	10 매
103		Rancamaya Golf & Country Club	1인 어린이 골프 이용권	6 매
104		Rancamaya Golf & Country Club	4인 골프이용권	1 매
105		Rancamaya Golf & Country Club	2인 빌라 숙박권	2 매
106		Riverside Golf Club	주중 골프이용권(4인)	1 매
107		Sentul Highlands Golf Club	주중 골프이용권(4인)	1 매
108		Wita Tour	2인 발리 왕복 항공권 및 호텔 숙박권 (2박 3일)	1 매
109		김삿갓	점심 도시락	150 개
110		대감집	점심 도시락	100 개
111		서울의 달	점심 도시락	150 개
112		오장동	점심 도시락	100 개
113		장군집	점심 도시락	100 개
114		청기와	점심 도시락	100 개
115		한강	점심 도시락	150 개
116		한민족	점심 도시락	100 개
117		한양	점심 도시락	100 개
118		휴	캔맥주	264 개
119	하갑종	시원소주	시원소주	100 병



인니관세청&한인무역업체 통관·물류 해결 본격화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관세청 청사에서는 인도네시아 관세청(청장 안와르 쑤쁘리야디) 간부들과 한국 대사관(대사 김호영) 및 한인 무역업체대표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상호 신뢰구축과 협력증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안와르 관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인니는 한-아세안 자유무역의 길을 열었다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무역국가로서 인식되었고 인니관세청은 절차간소화, 투명성제고, 서비스질 향상, 국제표준에 맞는 효과와 전문성 추구를 위해 개혁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청장은 양국 관세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사관의 이득수 관세관에 감사를 표했다.

김호영 대사는 “최근 관세청과 공간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교민들의 주요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인 소주의 과세가격 인하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핵심 추진사업인 관세선진물류시스템(CATS)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기관과 기업에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 국장은 무역과 물류품 안전을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CATS를 소개하며 “통합적인 국가 물류 시스템”으로서 절차투명성, 카르고와

물류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고로 물류시간 감소와 카르고 안전성 보장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밝혔다.

곧이어 교민기업인들의 질의 시간이 있었다. 한국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한 유통업체 대표는 항만 관세청의 비합리적인 절차 지연을 꼬집었다. 통상 10일 내에 마쳐야 하는 통관 조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재차 삼차 조사를 통해 지연시키거나 관세청과 식품청이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청의 동의 조사 목록을 다시금 관세청 복사해서 제출해야 하는 현 통관 절차의 복잡함과 비합리성이 수입유통업자와 관세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현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외자 투자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이에 단증쁘리옥항 관세 담당 국장은 “2007년 이후 세관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관세담당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최고의 투자적국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언제나 세관에 문제점을 전달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관세청은 대사관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오늘 같은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韓商' 한자리에 모였다.

동남아 한인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적 교류를 모색하는 최대 비즈니스장인 「동남아한상대회」가 동남아한상연합회(회장 승은호) 주최로 지난 2009년 8월 6일부터 2박3일 동안 인도네시아 빈판섬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4회 째인 「동남아한상대회」는 승은호 동남아한상연합회 회장을 비롯, 동남아 8개국에서 활동하는 40여 한상들이 바쁜 사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여 점점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한상대회의 열기를 보여줬다.

한상대회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 녹색투자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전체회의 시간에 다뤄진 '동남아한상대회 발전'을 위한 토론에선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금번 대회는 지속적 만남과 친목증진을 통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창출이 동남아한상연합회의 설립취지

임을 재인식하는 자리가 되었고, 차기 대회에 더 많은 한상들이 참여해 대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금번 대회 참가자들이 각 지역에서 동남아한상연합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회를 주최한 동남아한상연합회는 동남아 한상들의 효과적인 경제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세계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내·외 동포들 간의 경제

협력 노력에 앞장서며, 동남아에서 화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 비즈니스네트워크로 도약하고 미래 동남아한상을 이끌어갈 교민 2,3세를 위시한 차세대 리더 발굴과 지원 육성을 위해 정부 및 한국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승은호 회장 및 권병하 부회장이 향후 3년간 동남아한상연합회를 이끌어갈 회장단으로 재 선출되었고, 김재유 부회장의 사의로 송창근 회원이 신임 부

- 제4회 동남아한상대회 빈판섬에서 개최
- 동남아한상연합회, 지역한상대회 활성화 위한 결의문 채택



코린도 이종명 부장, 국무총리상 수상

- 29년 근속, 공적 인정 받은 해외 모범 근로자

1979년도 인도네시아 굴지의 기업인 코린도에 입사, 29년간 같은 기업에서 근속근무를 하고 있는 이종명 씨가 한국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승주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표창장은 지난 7월 24일 대사관에서 김호영 대

사로부터 전수받았다.

이종명 씨가 받은 해외근로자 상은 대통령상 표창 1인 다음가는 높은 상으로서 이종명 씨의 근속근무 기간과 공적, 기타 활발한 활동역량이 그 기준이 되어 평가된 것으로 올해의 모범 근로인의 표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표창장 전수식에는 오랜 세월 동고동락했던 가족들과 코린도 임원, 동료직원들이 참석해 많은 축하를 보냈다.

“전혀 생각지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아직 실감이 안난다”고 말하는 이종명 씨는 큰 상에 보은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겠다며 축하하러 나온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송창근(인도네시아), 최석(싱가포르), 황일록(말레이시아), 진용창(태국), 김철주(필리핀), 김용성(홍콩), 김영택(대만), 장창욱(스리랑카), 김명보(인도), 한기윤(베트남), 권혁창(라오스) 회원이 지역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한편, 대회기간 중 열린 켈러웨이 시스템을 적용한 친선골프대회에서 황일록(말레이시아) 회원이 우승의 영예를, 김용성(홍콩) 회원이 1st Runner-up, 지동주(인도네시아) 회원이 2nd Runner-up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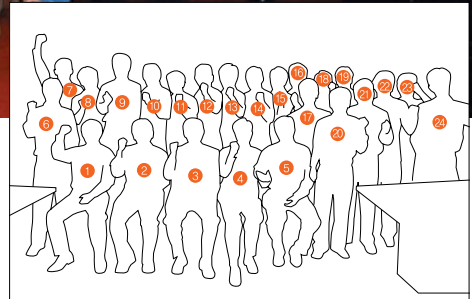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결성

100여 인도네시아 신발관련 한인기업을 대표하는 <재인도네시아 신발협의회>(이하 신발협의회)가 결성됐다.

지난 9월 18일 자카르타의 한 한식당에서 25명의 신발협의회 발기인 겸 준비모임 회원들은 초대회장으로 송창근 KMK 글로벌 회장을 추대하고 고문, 부회장, 총무, 부총무, 회계, 감사 등 16인의 회장단을 결성했다. 또한 금년 11월 중 모든 신발협의회, 대사관, 작업종별협의회 회장단이 함께하는 첫 모임을 갖기로 결의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김재유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구심점을 갖고 20년의 역사를 지닌 한인봉제협회의 활발하고 모범적인 활동에 반해 100여 기업이 넘는 신발관련 기업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전하고 “제4회 동남아한상대회(8월6일-8일, 빈판섬)서 신발협의회 결성 의기투합을 통해 오늘 모임이 있게 됐다. 앞으로 모임을 유대강화와 정보공유 통해 경쟁보다는 상생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전했다.

참석한 발기인들의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에 추대된 송창근 회



남상달(1), 서영율(2), 송창근(3), 김재유(4), 양승진(5), 홍종서(6), 정주성(7), 강호성(8), 김재민(9), 김영주(10), 조창식(11), 안상영(12), 김우현(13), 하연수(14), 송판원(15), 최덕렬(16), 곽삼섭(17), 강우영(18), 김성록(19), 최진덕(20), 신규태(21), 박성대(22), 하치호(23), 심현보(24)

장은 “80년대 인도네시아에 신발업체가 진출 시 한국의 직접투자 신발업체로만 협의회가 구성되어 전체 동종업체의 구심역할 미약으로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된 기억이 있다”며 “모든 신발업체가 동등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회 구성을 통해 강화된 정보공유와 유대관계로 현재 급속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대만 기업들에 맞서야 할 때다. 매우 시기 적

절할 때 모임이 결성이 되어 기쁘고 성공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회원으로 참석한 대표들도 모임 결성의 타당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회원들은 ‘오늘 결성을 기화로 침체된 분위기를 역전시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자’, ‘신발업체와 협력업체의 동시 참여가 협의회 발전의 중요 매개체가 될 것이다’, ‘경쟁력 있는 협의회 발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겠다’ 등 협의회에 대한 바람과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현재 인도네시아 100여 한인 신발업체는 연평균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신발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송창근 회장

재인니한국신발협회 회장단

직책	성명	회사명	업종
회장	송창근	KMK Global	신발
부회장	임철우	부경	신발
	이석태	UFU	신발
	곽삼섭	Bosaeng	신발
	조창식	백산	신세틱
	안상영	대화	가죽
	홍춘식	석세스	신발
	강주석	세림	스폰지
고문	서영울	Pratama Abadi	신발
	남상달	파크랜드	신발
	양승진	도손	신발
	김재유	동성	접착제
	하연수	서린	부자재
	양영연	보성	박스
	김영주	DEWA CITRA	슈 레이스
감사	송판원	고려폴리머	PU & 잉크
	최덕렬	신따 우성	텍스타일
	지동주	클린팩	박스
	김덕우	DW TRADE	신발
회계	정주성	대성	아일렛
	하치오	라버텍	아웃솔
사무총장	홍종서	한영	접착제(부직포)
부 사무총장	강호성	ACMI(구 신일)	몰더
	이경선	KS TRADE	신발
	윤석환	성신	파이론



신발협의회 회장단 첫모임 가져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회장단은 협의회 발족 후 8월 27일 첫 모임을 갖고 금년 10월 신발협의회 정식 출범을 위한 사안에 대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회장단은 협의회 회칙 제정과 회장단 보강, 회원모집 건, 협의회 정기행사 구상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향후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 금년 10월에 예정된 신발협의회 정식 출범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만들어 내자고 의기투합했다. 한편 서행원 전 신발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여 이전 협의회회의 경과를 설명하고 다시 시작하는 신발협의회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전해 자리를 더욱 뜻 깊게 했다.



봉제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봉제협, 회원 초청 골프대회 개최 —

재인니한국봉제협의회(이하 봉제협, 회장 배도운)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1990년 창립 이후 협회 회원간의 꾸준한 친목과 단결로 인도네시아 한인업종별 협의회 최초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봉제협은 이에 지난 9월 2일 회원사 및 대사관, 한인회를 초청하여 창립기념 골프대회를 개최하고(임페리얼 골프장) 창립 20주년을 자축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봉제협의 발전을 바랐다. 골프대회는 160여명이 참석, 큰 규모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세호 씨가 영예의 Medalist를 차지했고 김주원씨와 이건호씨가 각각 A조, B조의 영광을 안았다.

골프대회 후 봉제협은 창립20주년 기념식을 갖고 봉제협을 자축하는 한편 골프대회 시상식 및 회원사가 후원한 많은 찬조품을 나누는 행운권 추첨시간을 갖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화목한 분위기를 연

출했다.

기념식에서 배도운 봉제협회장은 “2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 온 봉제협은 올해 300여 회원사, 25억 불 수출, 45만명 고용이라는 저력있는 협의회로 발전한 만큼 앞으로 한인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협의회로 거듭 발전해 나가야 할 시기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호영 대사는 “용기와 슬기로 20년을 잘 이겨내 온 오늘 이 자리의 뜻이 매우 깊다. 그간 대사관은 봉제협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어제 국회에서 곧 국회 통과할 것이라고 연락이 왔다. 대사관뿐 만 아니라 봉제협의 노력과 인내의 산물이라 생각한다”며 자리를 더욱 뜻 깊게 했다.

또한 승은호 한인회장도 “봉제협 골프대회가 회



인사하고 있는 제20대 봉제협의회 회장단들

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단결과 결속으로 모범적으로 이겨낸 협회가 바로 봉제협이다. 봉제협의 저력을 한인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봉제협은 20주년을 기념해 역대회장(이완주, 문효건, 김경곤) 및 사무총장(조규철, 김세형)을 초청해 그간의 고마움을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하고 또한 지역 봉제협 모범직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역대 회장으로서 감사패를 받게 된 이완주 사장은 “감개무량하다. 봉제협이 이제 성년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한인사회, 지역사회에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역대 회장들(김경곤, 문효건, 이완주)과 배도운 회장

■ 골프대회 수상자 명단(팔호안은 핸디캡)

- 전체**
 Medalist: 이세호 -4(4)
 Longest: 정철현 270m
 Nearest: 임현수 2.5m
- A조**
 우승: 김주원 : -5(14)
 1st Runner: 김병권 : -5(14)
 2nd Runner: 오성태 : -4(5)
- B조**
 우승: 이건호 : -5(16)
 1st Runner: 장재흥 : -5(22)
 2nd Runner: 김재열 : -3(16)





재인니한인회 회장단
일동이 조문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교민들 조문 이어져

김대중 前대통령이 병환으로 8월 18일 서거했다. 故 김대중 前대통령의 장례가 6일간(8.18-23)의 국장(國葬)으로 결정됨에 따라, 대사관은 1층 접견실에 조문소를 설치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찾은 교민들을 맞이했다.

교민들은 이른 오전이나 점심시간 시간을 내어 직장단 위 조문객이 빈소를 찾기도 했고, 바쁜 하루일과를 끝내

고 비로소 빈소를 찾은 교민들도 있었다. 대사관은 지정된 조문시간 외에 찾아오는 교민들을 위해서도 당직을 두어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고 교민들 또한 차분히 고인의 서거를 애도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친 故 김대중 前대통령에 대한 교민들의 반응은 차분한 가운데 큰 인물이 가셨다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대한항공 운항 안내

자카르타/서울 노선 및 덴파사르(발리)/서울 2009년 하계 운항 시간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공편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10+1	매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45	20:45	매일
덴파사르 > 인천	KE630	03:10	11:15	일/월
		01:20	09:25	화~토
인천 > 덴파사르	KE629	18:05	00:01+1	월~금
		19:50	01:50+1	토/일

2. 기간: 2009. 3. 29~

또한 2008년 6월부터 기 시행중인 신 전화 서비스는 한국어/영어 서비스를 각 지역 CALL CENTER에서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유선 연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1번 :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 2번 : 한국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3번 : 영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4번 : 중국어 서비스
- 5번 : 일본어 서비스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84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전통의 향기 심은 김명지 선생 한국 귀국

손인식(서예가)

시요 문화였던 김명지 선생(월화차문화원 원장)이 한국으로 ‘뿔랑’ 했다.

지난 8월 21일 밤 자카르타의 한 레스토랑, 김명지 선생 송별에 의미를 두어 그간 사적 공적으로 관계를 맺어오던 몇몇 사람이 조촐하게 함께 둘러앉았다. 선생의 한국 행을 알게 된지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었기에 어떤 형식을 갖출 수도 없었고, 지인들에게 충분히 연락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행스럽게도 석별을 아쉬워하는 참석자들의 마음 외에, 지난 92년부터 그가 쌓은 공로에 대해 대사관과 한인회의 감사의 뜻 전달이 있어 조촐하지만 그런대로 그 의미를 새기는 자리였다.

정기적으로 차회를 열고 전통무용을 지도한 김명지 선생. 시간을 늘려 시를 쓰고, 전통음식에 관한 것들을 전수하고 싶어 했고, 또 틈을 이용해 한국예절을 심고 전통 복식이며 천연염색, 혼례의 풍속이나 제례에 담긴 의미 등 선현들이 남긴 귀중한 전통문화들을 다지면서 누구에겐가 전달하고 싶어 했다.

<월화차문화원>, 지난 17여 년 동안 450여명이 몸과 마음을 다진 선한 멋이 넘쳐나는 이름이다. 남편의 직장 주재지 또는 비즈니스 현장인 타국 이곳에서 한국의 여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해 마음과 몸을 다지고 또 다졌던 향기의 생산 처로서의 그 이름이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그 <월화차문화원>을 이끌었던 김명지 선생이 떠났음에도 선생의 뜻을 받들어 남아있는 『월화차문화원』 회원들이 차회와 전통무용 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이다. 차회는 정연규씨가 맡아 매월 같은 방식으로 차회를 열고, 전통무용 반은 조은숙씨가 담당하여 실력을 다지고 키우며, 필요한 경



김명지 선생

우 변함없이 교민행사나 대사관 행사 등에 봉사를 해 나갈 것이라 한다. 선생은 평소 “21세기가 엄마들의 힘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임을 강조했다. “해외에서 키우는 아이들에게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세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2세들이 세계인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한국인이 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남편들이 타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겪는 고통과 맘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기 쉽지 않은 곳이 해외다. 뒤섞이기 어렵고 마음 붙이기도 쉽잖은 후답지근한 이국이 이곳이다. 오고 감이 잦은 어쩌면 객주(客酒) 같은 곳이다. 그런데 김명지 선생은 이곳에서 살았던 17년여를 초지일관했다. 내적인 것 보다는 자칫 외적인 것으로만 평가되기 쉬운 곳이기에, 오직 한결같이 문화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고 간 선생이 벌써 그리운 것이다.

조촐한 송별연에서 한 컷. 앞줄 오른쪽 차회를 이끌어갈 정연규씨, 앞줄 왼쪽인 전통무용반을 이끌 조은숙씨



인니 정부, 한국어강사 연수과정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 취업하는 자국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한글 교육을 위해 한국어강사 연수 과정을 도입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 통과를 의무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일고 있으나 현지인 강사들의 기본적인 자질 부족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에 4만여 명이 몰리는 등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수백 개의 한국어 학원이 난립하고 있으나 자격을 갖춘 한국어학원은 30여 개에 불과하다.

지난 8일 개강한 ‘제1회 한국어강사 연수’ 과정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기구인 송출보호청이 주최하고 한글학회 산하 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와 하나어학원이 시행하고 있다.

송출보호청의 와얀 만디 국장은 “당국이 한국어강사 연수 과정 이수

를 의무화하고 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해 건립한 자카르타 소재 ‘한-인니 기술문화협력센터’에서 19일간(100시간) 실시되며, 한국어 교습법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강의는 물론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구성됐다.

하나어학원의 박진려 원장은 “한국어강사 자격을 갖춘 현지거주 한국인 및 한글학회 파견 요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했다”며 “인도네시아어가 능숙해 기초 단계의 한국어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3년 간 일한 뒤 중부자바 지역에서 한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띠떡(36.여) 씨는 “부족한 한국어 교습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학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자국 노동자의 업무능력 향상의 일환으로 한국어 현지인강사 연수과정을 도입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제1회 한국어강사 연수> 개강식에 참석한 한국인 강사진과 현지 연수생들.

<기사제공: 신성철 스피드뉴스 대표/연합뉴스 인니통신원>

교민 53인이 수 놓은
우리들의 이야기...

도처고향 출판기념회

50인 이상 교민이 글쓰기에 참여하여 해외생활에서 느낀 우리 주변 생활들을 잔잔하면서도 다양하게 엮어낸 한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자카르타에서 서예가로서 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평소 글쓰기를 생활화하고 있는 글쓰기 예찬론자인 인재 손인식 씨가 기획한 『해외한인들의 이야기 도처고향』(이하 도처고향)이 52인이라는 많은 교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우리 사는 세상을 솔직한 시각으로 그려내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3일 자카르타에서는 김호영 대사, 한인회 부회장단, 부인회장 등과 책의 주인공들인 공저자들, 『도처고향』출판을 자축하는 출판기념회가 축하하러 나온 많은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땅그랑, 버까시, 보고르를 포함, 저 멀리 족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롬복섬,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에서 알찬 삶을 일구



자카르타

는 한국인들의 이야기였기에 출판기념회가 있기 전 책을 미리 받아든 상당수의 교민들이 완독을 했을 만큼 『도처고향』에 대한 교민들의 반응과 관심은 상당히 뜨거웠다.

출판기념식에서 공저자 한분 한분이 소개를 할 때 마다 진심어린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고 값진 일을 처리하고 난 후 보람을 느끼듯 각 저자들의 표정들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다.

한편 『도처고향』출판기념식은 책 마디 마디에 소개된 인재 손인식씨의 서화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인 『말할때를 아는 침묵』전을 겸해 교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인재 손인식 씨와의 짧막 인터뷰가
46쪽에서 이어집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노선에 최첨단 항공기 투입

대한항공은 대표적인 상용 노선인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최첨단 좌석을 갖춘 항공기를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창립 40주년이 되는 올해, 기내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도입한 차세대 명품 좌석과 첨단 기내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인천-자카르타 하늘을 날게 될 명품 좌석은 국내 처음으로 해외 전문 디자인 업체에 의뢰해 좌석을 설계한 ‘코스모 스위트’(Kosmo Suites), 180°로 펼쳐져 기존 일등석 못지 않은 안락함을 제공하는 ‘프리

스티지 슬리퍼’(Prestige Sleeper), 더욱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뉴 이코노미’(New Economy)등으로 지난 6월 초부터 인천-뉴욕 노선에서 첫 투입된 바 있다.

오는 10월부터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 차세대 명품 좌석은 기존에 운영되던 좌석을 전면 교체한 B777-200 항공기에 장착된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서비스 품격을 높인 것은 지난 1년 여 동안 준비한 것으로 대한항공은 인천과 자카르타를 오가는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천상의 휴식 공간, 차세대 명품 좌석

일등석 [코스모스 스위트(Kosmo Suites)]

지난 3년 여간의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친 세계 최고의 항공기 좌석이다. 좌석 한 개당 가격이 2억5000만원에 이르는 ‘코스모 스위트’의 외형은 나무 컬러로 디자인 되어 3만 피트의 하늘에서도 마치 대자연의 숲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좌석은 180° 완전 평면으로 펼쳐지면서도 좌석의 폭을 기존 일등석 대비 15.3cm 확대해 신체가 큰 동양인은 물론 서양인들도 안락하게 누워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인 주문형오디오비디오(AVOD) 화면도 기존의 일등석 대비 41.9cm 늘어난 58.4cm(23인치)로 확대하여 VIP들이 하늘에서도 마치 지상의 대형 영화관에서 박진감 넘치는 화면을 즐기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했다.

‘코스모 스위트’는 프라이버시 보호용 중앙 스크린을 대



폭 확대하여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독립 공간을 제공한다. 좌석 기울기와 높낮이는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 스크린 까지도 버튼 하나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을 채용해 여행의 편리함을 더했다.

비즈니스클래스 좌석 [프레스티지 슬리퍼 (Prestige Sleeper)]

“비즈니스클래스에서 180° 침대형 좌석의 안락함을 경험한다.”

‘프레스티지 슬리퍼’는 국내 항공사 비즈니스 클래스 최초로 180°로 완전히 누울 수 있도록 디자인된 좌석으로 고객들에게 여타 항공사의 일등석에 준하는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개인용 독서 램프는 승객의 눈높이에 맞게 방향과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옆 좌석 승객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칸막이를 대폭 확대했다.

AVOD 모니터도 기존 프레스티지석 대비 2배 이상 커진 39.1cm(15.4인치)를 장착해 중,장거리를 여행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하늘 위의 개인 사무실’에서 개인 업무와 휴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석 [뉴 이코노미 (New Economy)]

일반석에 장착된 ‘뉴 이코노미’는 쿠션을 보강하는 등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한다.

좌석 뒷면을 슬림화시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 했으며, 등받이를 뒤로 기울일 경우 방석이 앞으로 이동하도록 설계하여 앞사람의 움직임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

AVOD는 기존 보다 5.6cm 늘어난 26.9cm(10.6인치) 모니터가 장착된다.

첨단 IT의 향연, 전 좌석 AVOD 시스템

차세대 명품 좌석에 장착된 AVOD 시스템은 대형 화면과 첨단 정보기술(IT)이 합쳐지면서 승객들에게 최고의 기내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한다.

‘코스모스위트’의 AVOD 화면은 기존 일등석 대비 41.9cm 늘어난 58.4cm(23인치), ‘프레스티지 슬리퍼’의 모니터는 일반 프레스티지석 대비 22.6cm 확대된 39.1cm(15.4인치), ‘뉴 이코노미’는 5.6cm 늘어난 26.9cm(10.6인치) 크기의 AVOD가 각각 장착된다.

전 좌석의 AVOD는 고화질(HD) TV가 일반화되는 추세에 맞춰 화면을 영화관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16:9 비율의 와이드 모니터가 사용되며, 핸드셋을 이용한 커서 조작 및 화면에 손가락만 대면 메뉴 이동을 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을 동시 적용해 편리함을 더한다.

생생한 느낌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AVOD 시스템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는 최신형 PC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며, 네트워크 속도도 최대 1Gbps급으로 높여 향후 박진감 넘치는 3차원(3D) 게임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AVOD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연결편 정보, 항공기 외부 전경 감상 서비스, 최신 뉴스 동영상, 텍스트 서비스, 어린이를 위한 40여종의 게임, 첨단 오디오 플레이어, 등이 제공되어 승객들에게 즐거운 항공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연산 전해질 음료

스망까 Semangka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인 여름에는 누가 권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박에 손이 갑니다. 한 입 베어 먹으면 입안에 가득 차는 단물은 갈증을 단숨에 해소시켜 줍니다. 시원하고도 달짝지근한 수박은 예로부터 더위를 이기는 식품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햇볕을 쬐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일하다 보면 체온 유지를 위해 몸이 무리를 하게 돼 더위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더위에 지쳐 건강을 상하기 전에 더위를 바로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럴 때 수박이 아주 좋은 음식이자 약입니다. 특히 열대지방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박의 학명은 *Citrullus vulgaris*입니다.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쌍떡잎식물 박목 박과 수박속에 속하였으며 같은 박과의 과일로는 메론, 참외가 있으며 맛과 효능이 서로 비슷합니다.

수박의 원산지는 아프리카로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재배되었다고 하며, 각지에 분포된 것은 약 500년 전

이라고 합니다. 사막에서는 음료로 귀중하게 여겨져 왔으며 중국에서는 실크로드를 따라 전해져 <서역의 박>이라는 의미로 서과(西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조선시대 《연산군일기》(1507)에 수박의 재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는 일반재배는 물론 시설원예를 통한 연중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수한 품종은 물론 씨 없는 수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박은 인도네시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한국보다는 껍질색깔이 흐릿하고 줄무늬 또한 열립니다. 스망까(Semangka)라고 불리며, 쉽게 어디서나 맛 볼 수 있는 열대과일입니다.

수박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동그란 원형의 초록색 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위에는 검은색으로 줄무늬가 있습니다. 두드리면 ‘통통’ 맑은 소리가 나며, 칼로 반을 자르면 빨간 속살의 과육과 수박즙이 흘러내립니다. 빨간 과육 안에는 갈색과 검은색의 씨앗이 박혀

있습니다. 수박껍질 안쪽으로는 하얀 과육이 있으며 약 2,3cm정도 되고, 보통 껍질과 하얀 과육은 먹고 버리지만 흰 과육 역시 일상생활에서 먹거리로, 약재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수박의 한방적인 이름은 서과(西瓜: 일용본초), 한과(寒瓜: 도홍경), 천생백호탕(天生白虎湯: 왕영(汪穎)의 식물본초) 등으로 부릅니다.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량(涼), 감(甘) 무독(無毒)하여 맛은 달고 성질은 찬니다. 수박은 청열해독, 지갈, 이뇨의 효능이 있고 수박 껍질은 청서해열(淸暑解熱), 지갈, 이소변(利小便)의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수박은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면서 독이 없어 갈증과 더위 독을 없애고 기(氣)를 내리고 오줌이 잘 나가게 합니다. 또한 입 안이 험해도 치료효과가 좋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수박은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음주 후 알코올의 분해와 배설을 돕고, 인후염이나 편도선염 등으로 인한 발열 증상과 통증에 해열·소염 작용을 나타냅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눈의 충혈과 두통에 효과가 있고, 변비가 심한 사람에게는 장관의 연동작용을 도와 배변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수박은 200g당 50kcal의 저칼로리 식품이며 91.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단백질이 0.7%, 당질 7.9%, 비타민 A와 C,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소나 비타민류는 거의 없다 봐도 될 정도지만, 이뇨작용과 관계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트룰린(다량 함유되어 있고 수박씨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박의 붉은색 색소는 ‘라이코펜’이라 불리우는 강력한 항암물질로 암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 이뇨작용, 심장병,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박은 다른 과실에 비해 월등히 많은 라이코펜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박의 시트룰린(citrulline)이라는 아미노산은 이뇨작용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박씨를 말려 볶아 먹거나 삶아 차로 만들어 먹으면 고혈압, 동맥경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잘 익은 수박은 두드리면 “통통”하는 청명한 소리가 나는 반면, 덜 익은 수박은 “깡깡”하는 금속음이 나며 너무 익은 수박은 “퍽퍽”하는 둔탁음이 납니다. 또한 껍질 표면이 윤기가 나며 무늬가 진하며 원형 또는 단타원형의 수박을 고릅니다. 수박 꼭지부분이 생생한 것이 수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싱싱한 수박입니다.



또한 수박에는 수분 외에 과당도 많은데 이는 저온일 때 단맛이 증가하므로 수박을 맛있게 먹으려면 2~5℃ 이하에서 먹어야 합니다. 수박을 냉장 보관했다가 먹어도 좋고, 수박화채나 과일 칵테일을 해 먹어도 좋습니다. 수박의 흰 살 부분은 따로 모아서 노각처럼 무쳐먹어도 맛있고, 물과 함께 달여 보리차 대신 마시면 갈증을 타는 당뇨병자들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성질이 찬 과일이므로 배탈이 잦은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모든 과일 중에서 수분이 가장 많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수박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어 ‘자연산 전해질 음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철 더위를 가라앉히고 이뇨 작용을 하도록 만든 조물주의 사랑이 담긴 과일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물에 담가놓은 수박을 쪼개어 먹는 맛은 기쁨을 더해주기도 하고 수박 한 통은 여러 사람을 불러 모으는,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우리의 여름을 지켜준 수박은 더운 인도네시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최적의 과일이 아닌가 합니다.



공항 입·출국 시 유의 사항

아래 사항은 우리 교민이 출입국 하거나 체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평소 사전 확인 및 절차를 숙지하시어 향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니대사관 영사과

● 공항 입출국 시 유의 사항

1. 여권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여권 페이지도 비자 부착 란과 입국 심사인 받을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함

▶ 공항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 함

2. 도착비자 개념 및 활동 가능한 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함.

도착비자는 관광, 방문, 상용, 회의참석등 활동이 가능함, 다만 상용의 개념 해석이 모호하나 영리활동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는 가능

▶ 도착비자로 특정회사를 방문했다는 사유만으로 범 위반이라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사 방문 후 상담, 시찰등은 가능하다는 이민청 유권 해석 있음

▶ 다만, 취업 비자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도착비자나 단기상용비자를 받아 출입국하는 것은 체류 자격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므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음(소급 조사가 가능하므로 이번만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

▶ 도착비자는 연장, 기타 자격으로 변경 허가되지 않으며 체류기간도 입국 당일을 포함

3. 체류허가기간을 넘기고 출국하려는 경우 와 입국 신고서 분실 시

▶ 체류기간 도과의 경우도 2가지 유형이 있음, 즉 60일 이하의 경우와 60일을 초과 한 경우임

▶ 도착비자나 사회 문화 비자를 소지한 후 60일 이내 기한 도과의 경우 20불/1일 환산 부과하여 출국조치하나 60일 초과 된 경우 공항에서 벌금 납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함

▶ 출국 심사 시 출입국신고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과태로 납부(?)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나 당황하지 말고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과태료조항 없음)

● 체류 중 유의 사항

1. 방문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시 유의 점

- ▶ 방문, 상용 목적의 비자도 사회 문화 비자로 통합되어 발급되며 반드시 초청자나 스폰서가 필요함, 이에 따라 연장 신청 시에도 최초 초청자나 스폰서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연장 신청 시 유의 할 것 (특히, 대행 업체에 의뢰 시 처리 방향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을 것)
- ▶ 상용비자의 경우 2개월 체류 후 연장 신청 시 대부분 체류목적의 의심받게 되므로 2개월 이상 장기 체류 하며 상용활동을 할 경우 특히 유의(일단 연장 조치를 해준 후 사후에 조사를 하는 사례가 많음)

2. 체류지 신고사항 준수

- ▶ 도착비자나 사회문화비자(2개월 이내)를 소지하고 입국 하였을 경우 숙소를 제공한자는 반드시 24시간 이내 관할 경찰서(동, 통장)에 신고토록 되어있음-호텔 투숙 경우 숙박카드작성(출입국관리법제60조)
- ▶ 동 조항은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이나 경찰이 다른 사유로 입건한 후 특이사항 없을 경우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음

3. KITAS 소지자의 연장 시기나 재입국 허가 문제

- ▶ KITAS기한 연장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유효해야 연장이 가능하나 대한민국여권은 전자여권으로 갱신 신청(연장 제도 폐지)해야하므로 최소 2주일 이상 기한을 두고 여권 신청을 하여야 함
- ▶ KITAS는 체류기간 허가를 받은 것일 뿐 그 기간 내에 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함 (평소 외국에 나 갈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 하지 않다가 연휴기간이나 급한 일이 발생하여 일시 출국 할 경우 낭패를 겪는 사례 빈발)
- ▶ 재입국허가를 받은자가 허가 기한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원래 체류허가(KITAS)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입국해야 하며 기한내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 인니대사관에 사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함

4. 2가지 이상 직책 겸직 금지

- ▶ KITAS 상 허가 받은 직책이외 다른 직책을 겸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간혹 가정주부들이 직업활동을 할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됨
- ▶ 교민 정서 상 같은 회사 내 에서 임시로 다른 직책을 겸한다고 문제 될 것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 조항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처벌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음

5. EPO (출국허가)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출국기한 엄수

- ▶ 체류기간 종료 후 또는 회사 변경등 사유로 출국허가(EPO)를 받아 출국할 경우 통상 일주일정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나 그 기한을 넘긴 후 출국 할 경우는 벌칙조항이 상이 함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1일 20달러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KITAS 소지자가 출국허가를 받은 경우 달리 적용 하여 막대한 벌금을 요구할 수 있음)

6. 재외국민 등록의무 이행

- ▶ 재외국민 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이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유사시 연락망, 국내 재산권 행사, 재판, 자녀 특례입학 문제,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특히 제3국 영주권 신청 시 체류국가의 신원증명 기초 자료로 활용 됨
- ▶ 귀국 후 재외국민등록부가 필요하여 소급하여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 함



오적(五賊)과 의적(義賊)

글 김문환

2009년 7월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자 민주당은 원천무효라고 외치며 김형오 국회의장, 의사봉을 잡았던 이운성 국회부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문광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를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오적(五賊)’이라고 지목하고 해당의원의 지역구에 내려가 규탄 대회를 열며 장외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다섯 명이 진정 역적(逆賊)인지, 아니면 의적(義賊)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민주당이 표현한 ‘오적(五賊)’이라는 어휘가 잠시 눈길을 끄는 것은 과거에 이 단어가 우리들의 뇌리 속에 여러 차례 잠입한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1905년 11월 대한제국 당시 을사조약에 찬동한 다섯 명의 역적인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

重顯)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고 배운 바 있다. 이들은 이후 일본제국으로부터 후작, 백작, 자작이라는 작위까지 수여 받아 매국노의 대명사로 불리며 나철, 기산도, 전덕기 같은 우국충정자들에 의해 수차례 암살시도를 당하였으며 1909년에는 을사오적의 대표 격인 이완용이 이 재명의 칼을 맞기도 하였다. 이들 을사오적은 2007년 발표한 1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 후손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5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민중 시인이며 극작가인 렌드라(WS Rendra)가 74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그는 평생 가난한 자, 억압 받는 자의 편에 서왔으며 사회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다 당국에 끌려가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말년에 이르기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평생 고초만을 겪었던 그가 임종하기 직전 병상을 지키고 있는 부인에게 “나는 행복하였소.”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



런데 렌드라 시인이 수하르또 정권을 비판하다 군인들에게 끌려가던 시절인 1970년, 월간지인 '사상계(思想界)' 5월호에 29세의 젊은 시인 김지하(金芝河)가 부정부패와 초호화관 방탕생활을 일삼는 재벌, 국회의원, 장성, 고위공무원, 장관을 을사오적에 비유하여 '오적'이라 규정짓고 특권층을 통렬히 비판하며 서민의 한을 담아낸 서사시를 발표하여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는 이 필화사건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의 옥고를 치르는 등 갖은 고난을 당하며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각인되게 되었다. 김지하 시인은 그해 3월 서울 강변로에서 발생한 정인숙 여인 피살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오적을 짐승의 탈을 쓴 인물로 탈바꿈시키고 이들이 모여 도둑질 대회를 벌이는 것으로 묘사하였으며 오적을 잡아들여야 하는 포도대장은 오히려 이들에게 매수되어 도둑총을 지키는 주구(走狗)로 살아간다고 풍자하였다. 결국 포도대장과 오적의 무리는 어느 날 아침 기지개를 켜다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 최후를 맞이한다는 인과응보적인 기법으로 이야기를 마친다.

을사오적의 대표 격인 이완용(李完用)의 3대 가족이 모여 사진촬영을 하였다. 의자에 앉은 사람이 이완용이고 가운데 선 사람이 아들 이항구. 그는 다섯 명의 오적 중 가장 높은 작위인 후작(侯爵)을 일본 황실로부터 은사 받았으나 항상 암살단의 표적이 되던 중 1909년 이재명이라는 자객으로부터 칼을 맞기도 하였다.

제5공화국을 통치하였던 육사 11기 출신들의 사조직인 '하나회'도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인 '오성회(五星會)'에서 출발하였다. 동기생들 중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전두환(대구공고), 노태우(경북고), 김복동(경북고), 백운택(경북고)과 경남 김해 출신인 최성택(경남고) 등 5명의 생도들은 미래의 장군을 꿈꾸며 각각 용성(勇星), 관성(冠星), 여성(黎星), 웅성(雄性), 혜성(慧星)이라는 아호를 만들어 서로를 호칭하였으며 함께 외출하여 토론을 벌이며 방학 때가 되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여 형제처럼 지내는 돈독한 우의를 과시하였다. 1955년 이들이 소위로 임관한 후 각자의 일선부대로 뿔뿔이 흩어진 후에도 이들의 유대관계는 더욱 강화되어 절친한 동기생들인 손영길, 권익현, 정호영, 노정기, 박갑룡 등 다섯 명을 추가로 가입시켜 '텐 멤버(Ten Member)'가 되기에 이르렀다. 1963년에 이르러 이들이 소령으로 승진하자 후배기수인 13기, 14기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낸 '하나회'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하나회 회원은 각 기수에서 한수(漢水)이남 출신으로 10명에서 12명 이내로 엄선하였으며 회원의 70%~80%는 경상도 출신이었고 전두환 소령이 초대 회장을 맡게 되었다. 이 하나회는 이후 집권 최고위층의 비호아래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군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하여 1979년 궁정동 시해사건의 후폭풍인 12.12 쿠데타의 씨앗이 된다. 그러나 하늘을 찌르던 이들의 기세도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에 의해 단 칼에 뿌리가 뽑히게 된 것은 물론 그들의 수장이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옥고를 치르는 징벌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1970년 8월 21일 수하르토 군부에 의해 끌려가는 렌드라(Rendra) 시인. 같은 해 한국의 김지하 시인은 '오적'이라는 담시(譚詩)를 '사상계' 5월호에 발표하여 공안정국이 요동치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으며, 이후 '사상계'는 영원히 폐간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2009년 4월 총선에서 14%의 득표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당수인 유승 깔라의 대선 후보로서의 개인 인기도가 항상 5% 미만에 머물자 유승 깔라의 대선후보를 결사 반대하는 기류가 골짜르당 내에 팽배하게 된다. 이 반대 기류의 선봉에 선 당 지도부는 아부리잘 바끄리(Aburizal Bakrie) 사회복지 조정장관, 아궁 락소노(Agung Laksono) 국회의장, 아끄바르 탄중(Akbar Tanjung) 전 총재, 떼오 삼부아가(Theo Sambuaga) 최고위원, 몰라디(Muladi) 국방대학원장(Lemhanas) 등이었다. 이들 5인 멤버는 골짜르당의 이탈세력이 되었으며 유승 깔라 진영에서 보면 반역 5인방인 셈이다. 당을 이끌어 가는 핵심 5인방이 단체 행동으로 돌아서자 유승 깔라는 만약 대선 1, 2차 선거에서 낙선하면 그 직후 당권을 이양한다는 밀약을 맺은 뒤에야 일단 유승 깔라 체제로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예상대로 유승 깔라, 위란또 조는 12%에 불과한 처참한 결과를 안고 1차 투표에서 승자가 결정되자 애초 약속대로 8월 12일 긴급 소집된 당 지도부회의(Rapimnas)에서 '10월 4일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후임 총재를 선출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고 수하르토 전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토미(Tommy)까지 가세하여 현재 5명 정도가 경선후보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변이 없는 한 막강한 자금력과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아브리잘 바끄리에게 골짜르 당의 지휘봉이 쥐어질 공산이 크다.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 산업이 일시에 이곳으로 몰려들자 이곳의 관습이나 문

화에 채 적응되기도 전에 현지인과의 충돌과 갈등이 야기되어 이들이 멀다하고 노사분규 사례가 현지 일간지를 장식하던 시절, 정의감에 넘친 교민 누군가가 익명으로 '한국x xxx' 라는 전단지를 만들어 교민사회의 가정 또는 사무실로 은밀하게 배포한 사건이 있었다. 동족을 폄하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어글리 코리아(Ugly Korean)'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적시한 일종의 고발장이었다. 동포를 헐뜯는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그 내용에 관한 한 우리 모두가 자성하거나 공감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어 당시 우리 교민들 중 일부는 이 사건을 '일지매적인' 해프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다. 이 시점을 전후하여 관민이 합심하여 신규 진출업체에 대한 계몽과 선도활동을 전개하여 이후 서서히 한인사회가 안정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이후 잠잠하던 교민사회에 몇 년 전엔 '한인사회의 오적'이라는 명단이 회자된 적이 있었다. 같은 교민들 간의 거래에서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대가로 자기 앞가림만 하거나 치부를 한 대표적인 악덕 사업가를 지칭한 가십 수준의 명단이었다. 사실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아무리 풍문이라해도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게 되면 꼭 늦겨울에 녹다 남은 잔설(殘雪)처럼 무언가 꺼림칙하고 개운치 못한 여운이 한동안 주변을 맴돌게 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이제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최대 교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에 걸 맞는 처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성토하는 오적, 을사년의 오적, 김지하의 오적, 하나회의 모태인 오성회, 골짜르당의 이탈 세력인 오인방 등 역적과 의적의 경계선에 대해 공허한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 이야기가 다소 궤도를 벗어났는지 모르겠다.

하나회의 모태인 오성회 멤버들의 생도시절 모습. 사진 뒷줄 오른쪽부터 노태우, 전두환, 한사람 건너 김복동. 맨 아랫줄 오른쪽이 최성택 생도이고 그 옆이 권익현 생도이다. 실제로 이들 다섯 명의 멤버 중 전두환, 노태우는 4성 장군이 되었고 백운택은 3성 장군인 군단장 재임시절 병사하였으며 김복동, 최성택은 이 거사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성 장군에서 멈추고 말았다. 특히 최성택 장군은 1973년 2월 필자가 육군본부 광장에서 임관할 당시 소위 계급장을 달아준 은사이며, 1988년 말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 자격으로 남부 깔리만잔주 바뚜리진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자네가 어쩌다 이런 데(정글 속)와 있나?” 라는 놀라움을 머금은 채 필자의 등을 두드려 준 인연이 있었다.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 021-526-8444 나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40만 루피아/년

●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Indonesian Heritage Society

Korean Section

Indonesian Heritage Society / Korean Section

(스나얀 소고 옆 Sentral Senayan 1 건물 17층), Tel: 021-572- 5870

10월 26일(월) 코리안 섹션 정기 총회 안내

시간: 오전 10시

장소: 비두리 아파트 클럽 하우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회원 가입 안내

9월에는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등 모든 회원들이 새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9월이 회기의 시작이기 때문이며 9월에 가입을 하면, 헤리티지 전체 주소록에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좋습니다. 9월 3일 정기총회 때 접수를 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도서관에서도 회원 가입을 받습니다. 도서관 (021 572-5870)

헤리티지 문화탐방 활동

헤리티지의 수요일 문화탐방 모임과 스타디 그룹, 문화 탐방 여행 등 영어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가 9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활동 속에서 외국인과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도서관으로 연락하거나 헤리티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웹주소 www.heritagejkt.org

이메일 info@heritagejkt.org

Open Lecture

지난 8월에는 천영민 선생님의 ”보로부드르와 불교” 강의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진행되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영민선생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월에는 라마단 휴가로 인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열린 강좌’가 없습니다. 10월과 11월을 위해 알맞은 강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Museum Tour

현재 매월 첫째 주 화요일과 셋째 주 토요일 9시 30분에 국립 박물관 무료 한국어 투어가 시작되며 신관 건물 4층을 포함하여 대략 1~2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교육과정을 마친 자원봉사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School Program

한국 국제 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열대 과일’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9월 11일(금)이며 이미지씨의 파워포인트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열대 과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학년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과일의 씨앗과 생김새를 학습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를 보충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Photo Club

사진반은 9월부터 정기모임을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갖 고자 합니다. 대략 0명의 인원이 현재 회원으로 있으며, 앞으로는 순다 플라빠, 국립 박물관 등의 문화유적이 있는 곳이나 사진 촬영을 위해 알맞은 곳으로 출사를 갈 예정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새로운 회원을 모집합니다.

공동 회장 이수진 0816 1300 210

이종숙 0812 838 1294





술라웨시 주 부통 섬 바우바우 시에 위치한 가르아바루 초등학교에서 '바하사 짜아짜아' 를 들고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 들

한글을 배우는 바우바우 짜아짜아 族

글 : 권 태하 작가

8월6일 밤9시 TV뉴스를 보는 도중 아나운서로부터 “인도네시아 중부술라웨시의 소수민족인 짜아짜아族이 자기네 부족고유의 말인 짜아짜아語를 우리 한글을 사용하여 표기한다고 합니다.”라는 앵커멘트를 듣는 순간 갑자기 찌르르한 전율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내 말띠팔자의 역마살은 늘 그런 식으로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다. 몽골을 다녀올 때도 그랬었고, 심지어 내 피붙이 하나 살지 않아 나오는 전혀 무관한 평양을 다녀올 때도, 길을 떠나고 싶은 충동은 언제나 온몸을 통한 짜릿한 전율로 발동이 걸리곤 했다.

한번 발동이 걸리기만 하면 오로지 그 생각 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 그곳이 어디 이든 달려가지 않고는 배기지를 못하는 성미라 10여일 자리를 비울 준비를 서둘러 했다.

인도네시아는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는 내 젊음의 황금기 5년을 보낸 나라이고, 또한 나로 하여금 청와대에 들어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신한국인상(新韓國人賞)이라는 쿤 상을 받는 영광을 안겨준 나라이기도 하다.

1980년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면서 우연히 자카르타 서점에서 접한 일본인 内海愛子の “赤道下の朝鮮人抗拒”라

는 책을 통해 梁七星이라는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독립영웅묘지에 묻혀 있으면서도 일제치하 창씨개명(創氏改名)으로 인하여 나카와 시치세이(梁川七星), 즉 일본인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내용을 읽고, 한달음에 중부 자바 가룻에 있는 독립영웅묘지

를 찾아가 묘적부를 확인했던 그날부터 무려 15년 동안을 오로지 양철성의 본이름과 국적을 찾아주기 위한 집념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내 소원을 성취했다.

수사반장 드라마를 쓸 때 쌓은 경찰인맥을 통해 양철성 씨 본적지를 찾아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영어로 번역한 후 국제공증까지 받아서 매년 인도네시아정부에 보내며 한국인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1995년 초에 “양철성 국적, 이름 찾아주기 시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외무부에 들고 간 것이 양국정부를 움직여 드디어 1995년 8월17일, 가룻독립영웅묘지에서 인도네시아 독립50주년기념식과 아울러 “양철성 KOREAN”이라는 새 묘비(내가 망우리에서 만들어 공수한 것)제막식을 인도네시아 군관민 1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여한중 총영사와 박동실 영사, 최계월 회장, 성인용님 등 교민대표들과 함께 성대히 치룬 일로 나는 그해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신한국인상’ 표창을 받은 바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일도 이미 14년이나 지난 옛날이야기가 됐고 더구나 중부 술라웨시의 처음 듣는 이름인 부툽섬 바우바우市까지 나 혼자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자꾸만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나 역마살을 끼고 사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가슴이

현장르브

설렌다는 그 자체가 곧 살아있다는 느낌과 같은 것이었다. 설렘은 용기로, 용기는 곧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례였으니 그날로 비행기 표를 끊고 8월10일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12일 짜아찌아를 향해 떠났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처남이 내게 이제는 예전과 달리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는 사람도 전혀 없는 곳인데 혼자서 갈 수 있겠느냐고 걱정을 했지만 나는 그것이 오히려 여행의 묘미가 아니겠느냐고 답변하면서 길을 떠났다, 다만 내가 그곳에 도착하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여서 혹시나 독립기념일로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었다.

마카사르를 거쳐 Kendari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쾌속정 Sagori호를 타고 4시간 반을 달려 바우바우 시에 도착하여 호텔에 짐을 푼 즉시, 호텔사무실에 찾아가서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자기들 부족 글씨로 쓴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며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를 찾아가고 싶다고 자동차를 수배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일이 되려고 그랬겠지만 하필이면 그 호텔 Raja wari의 사장이 바로 부톤왕국의 마지막 임금님의 손녀가 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가 한국에서 온 작가라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자동차와 운전수를 수배해 주면서 이 차를 타고 가면 그 학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만약 일찍 돌아오게 되면 바우바우 시내 꼭대기 크라톤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 술탄이 거처했던 성에서 기다릴 테니 박물관도 구경할 겸 나를 그곳으로 오라고 하며 큰 친절을 베풀었다. 그녀가 마련해준 차를 타고 약 1시간 반을 달려 suku ciacia (짜아찌아族)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다랐고 그곳 먼장의 안내로 도로변에 있는 SD Karya Baru 초등학교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역시 예상했던 대로 학교는 이미 파한 후였고 좁다란 운동장에는 하오의 강한 햇빛만 가득히 쏟아져 내리고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실망을 하려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그곳에 있었다!! 학교본관 벽면을 가득채운 대형 현수막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 한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 화제의 현장에 다다른 기쁨에 그동안 내 몸에 쌓였던 피로가 일순간에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 했다.

8월17일 인도네시아 독립64주년 기념일까지 학교는 방학이었지만 다행히 선생이 학교를 지키고 있었고 그



권태하 작가 소개

1979년; MBC-TV 개국10주년 1천만원교로 TV드라마 공모 당선(수사반장, 113수사본부 극본다수) 1993년; 月刊中央 창간25주년기념 1천만원교로 논픽션 공모 당선.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회원, 동대문문화원 상근이사. domini0727@hanmail.net

작품; 小説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上,下 1994.12 中央日報 出版部발행)

散文集; 진실한 바보가 그림다 외 5권

前 KODECO Batulicin 사업본부 업무과장, 梁七星 국적. 이름 찾아주기 시민운동본부 대표

선생을 통해 학교 맞은편에 살고 있는 빠 아비딘(Bapak Abidin)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다. 바로 서울대학교의 이호영, 황효성 교수와 함께 한글로 된 바하사 짜아찌아 1 교과서를 함께 만든 사람으로서 바우바우 제6고등학교(SMA NEGERI 6, BAU-BAU) 선생이었다.

한참을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옆집에 사는 촌부가 내가 찾는 아비딘의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얼마 전까지 집에 있었으니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사람을 보내어 수배를 하고 1시간여를 더 기다려 서울에 와서 6개월 동안 우리말을 배우며 훈민정음 학회에서 발간한 교과서를 함께 만든 빠 아비딘을 만날 수 있었다.

다행히 내 인니어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도 녹슬지 않았기에 대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아비딘 역시 서울에 있는 동안 “추워서 혼났다”는 한국말을 할 정도로 언어 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그곳 SD KARYA BARU 외에도 바우바우 시에 있는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왔으나 그 나라 정부나 기관에서 비협조적이었지만 찌아찌아의 경우 인도네시아정부나 바우바우市 당국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하니 역시나 Bhinneka Tunggal Ika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의 통일은 위대하였다.

그간 인터넷 daum blog에서 나와 교분을 맺어온 '조나단 박'이라는 분을 통해 부톤섬의 크라톤 왕국과 인근 무나섬(palau Muna)의 절경사진들을 눈여겨 본 적이 있어 kendari에서 이미 '조나단 박'을 만나 다음날은 라하(Raha)에 들리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던 차라 빠 아비딘 가족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호텔로 돌아와 이튿 날 아침 일찍 다시 바우바우 항구에 나가 쾌속정을 타고 약 1시간 반 달려 무나섬에 도착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이 그곳에 가자고 했을 때 단지 찌아찌아 족과 만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여행이 아쉬울 것 같아 아직도 사람들을 손을 덜 탄 무나섬의 비경을 이 기회에 꼭 보고 갈 요량을 했기 때문이다.

조그만 산에 둘러싸인 호수 같은 바다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동굴을 빠져 나가 다시 대형분재를 바다에 띄워놓은 것 같은 두 번째 바다에 이르고, 다시 그 분재바위산 틈을 이용해 해초를 양식하는 세 번째 바다에 다다라 멀리 바라 보이는 수평선을 향해 200여m를 걸어 나가도 파도도 전혀 없고 내 허리까지도 물이 차지 않는 맑고 야트막한 바다가 사람들의 때를 타지 않고 그곳에 있었으니 내가 그 이름을 '삼겹살 바다'라고 불렀던 무나섬의 그 절경은 발리보다 훨씬 나왔다.

만약 서울에서 가루다항공을 타고 다녀온다면 밤에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자카르타에 도착 곧장 마카사르를 경유 바우바우에 도착하면 비록 좀 고단하긴 하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바우바우에 1박하며 찌아

찌아 학교와 마을, 부톤섬의 술탄 크라톤을 둘러보고 다음날 배로 무나섬 라하에 도착 휴양을 겸해 2일쯤 폭 쉬고 Kendari나 Bau-Bau로 나가서 자카르타로 돌아와 1박을 하며 자카르타까지 관광을 한다면 오지의 비경과 한글을 배우는 찌아찌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멋진 관광코스가 될 것 같았다.

돌아오면서 줄곧 생각했다. 내가 할 일이 또 하나 생긴 셈이다. 주위사람들에게 바우바우시의 찌아찌아와 무나섬의 절경을 널리 알려서 한글을 배우는 찌아찌아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여야겠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強國中華'를 부르짖으며 청나라 황제 "康熙帝를 배우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그 200년 앞서 우리에게서 청나라 황제 강희제 자신의 글에서 깊이 존경했다고 밝힌 바 있는 世宗大王이라는 세계적인 성군(聖君)이 계시지 않은가?

이제 그분께서 지으신 한글이 세계화의 첫걸음을 뗐다. 후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글의 세계화속도는 국력신장과 비례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첫 시도를 한 바우바우시의 찌아찌아 부족이 한글을 자기네 부족의 문자로 쓰면서 그들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찌아찌아 부족처럼 아직도 글자가 없는 소수 부족들이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한글보급을 통해 한국과 깊은 교류가 맺어짐으로서 바우바우의 경제가 발전하고 찌아찌아 부족의 생활형편이 나아진다면 한글의 세계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선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 찌아찌아 부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그것이 내가 이 글을 재인니 한국교민들이 가장 즐겨보는 '한인뉴스'에 기고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바우바우 인근의 무나섬 Raha에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건설 중에 있다. 또한 부톤섬의 부톤(buton)은 천연아스팔트, 즉 캐나다의 오일샌드(oil-sand)처럼 석유를 추출할 수 있는 광물로서 바우바우의 크라톤 성곽이 바로 부톤일 정도로 흔했다는 점도 첨언 드린다. 세종대왕 만세!! 찌아찌아 만세!!



슬라웨시, 문명을 거부하는 까장족

글/사진 김성월
hansol0508@hanmail.net

까장족 어른들

사람과 사람이 말이 통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일이다.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알아듣고 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 학습하는 과정이며 교육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느 경우에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다.

콩을 안에서 키우면 콩나물이 되고 밖에서 키우면 콩나물 가 된다는 말이 있다. 누구든 더 나은 교육을 받으려면 지금 있는 곳에서 학습한 후 더 넓은 밖으로 나가야 한다. 가정에서 마을로, 학교로, 사회로 그 다음 나라밖으로.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살고 있는 나라밖으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어나서 평생을 동구밖으로 나간 적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었다. 슬라웨시 불루콤바에 가면 숲속 마을에 살고 있는 그들을 외부 사람들 ‘까장족’(suku kajang)이라고 불렀다.

돌로 쌓은 낮은 담벼락에 앉으니 내 고향 경북 의성의 풍경인가 했다. 매미들은 죽어라고 떠들어대고 닭들도 그리고 골목길을 지나가는 허리구부정한 노인들의 헛기침소리까지 같았다.

지나가는 노인에게 인사를 나눈 후 말을 건넸다. 그 마을



사람들은 거의 자급자족이었다. 노인은 태어나서 마을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고 했다. “마을 밖, 도시로 나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내 말에 “싫어한다.” 했었다.

내가 학생 때 일이다. 아이스크림콘을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는 늘 ‘싫어, 너나 많이 먹어라’ 하셨다. 어느 날 나는 역지로 아이스크림콘을 어머니 입에 넣었고 어머니는 ‘아이구 이거 입에 살살 녹는 게 참 맛있구나!’ 그 후로 어머니는 아이스크림을 즐기셨다.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어른들은 무조건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

아이스크림 맛을 몰랐던 어머니처럼 노인도 어찌면 바깥세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대답으로 덮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목에 걸린 카메라로 얼른 노인을 찍어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하자, 한참을 들여다보다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나야나(자신)”라며 정말 내가 맞다는 듯의 강조로 가슴을 툭툭 두드리기까지 하셨다. 카메라를 본 적 있냐는 물음에 ‘오늘 처음’이라고 하시고 나는 카메라에 동영상을 담아 노인에게 또 보여 드렸다. 노인은 이런 세상도 다 있나, 신기한 듯 허허 웃으면 동영상을 보았다.

그리고 “마을 밖에는 높은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많고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밖으로 나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제야 차도 타보고 도시로 나가보고 싶다고 했다.

모퉁이를 돌아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으로 갔다. 카메라에 찍힌 노인을 보여주면서 이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고 물었다. 수군덕거리더니 ‘누구다’며 말하자 옆에서 어디 나도 보자 하면서 몰려들었다. 여럿이 함께 보았다. 그 중에 젊은 남자가” 그것(카메라) 선물로 나에게 주세요. “하고 말했다. 아니 카메라는 내 밥그릇인데 달라고 하다니 열쇠고리 정도만 되어도 내가 하나씩 다 나눠주겠구만 아이구 미안해 하고 싶어라. 이럴 땐 그저 못 들은척하는 것이 최고다.

떠들썩하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닭, 매미소리가 약

해지고 마을은 조용해지면서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졌다. 두껍게 내려갈리는 어둠을 호롱불들은 감당하지 못한 채 나자빠지자 마을은 점점 어둠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카메라가 무서운 아이

교복 입은 초등학교생들이 무더기로 등교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초등학교생교복은 전국적으로 똑같다. 국기가 상 메라뿌띠(Sang Merah Putih)라 하며 빨강과 하양의



2색으로 빨강은 용기를 하양은 결백을 상징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모 양새가 그다지 예쁘지는 않지만 우리 집 아이 셋 모두 저런 교복을 입고 다녔다. 빈부의 격차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교복을 통일했다는 말을 들었다. 나라의 국기들이 등교하는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피디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2학년쯤 된 여자 아이가 울상이 되어 언니 뒤로 숨었다. 피디가 가까이 다가서자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면서 허겁지겁 도망갔다. 아이가 정말 무서워 도망가는 것을 보니 내 초등학교 시절 장난꾸러기 남자아이가 죽은 뱀을 들고 나를 따라오던 기억이 떠올랐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더 좋은 장면을 연출해 줄 테니 그만해요’라고 했다. 피디는 “이런 걸 찍어야 되죠.” 하면서 그 아이를 계속 따라갔다.

그랬다.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카메라



나라 라마단 금식기간 한 달 동안 그 지역 학교들은 모두 방학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지 요즘은 경조사도 간소화되어지고 학생들이 일주일에 사일정도만 결석을 한다고 했다.

현장에 가면 나는 무엇이든 물어보고 싶어 늘 입이 근질근질하다. 어느 교실을 들어갔다. 여자아이들에게 ‘네 이름이 뭐지?’ 하고 물었는

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이라서 부끄러워 그러는가보다 하고 그 옆의 학생에게 또 물었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옆에 선생님이 아이들이 아직 인도네시아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며 통역해 주셨다. 수학 수업하는 교실로 갔더니 아까 도망가던 여자아이가 제일 앞에 앉았네. 얼마나 반갑던지 있었다. 아까 왜 도망갔는지 선생님께 질문을 부탁드렸더니 시커먼 카메라를 처음 보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학 생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따나또아초등학교(SDN 351)로 들어갔다. 전교생 대부분이 운동화가 아닌 산달을 신고 등교했다. 교무실로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했다. 92년도에 학교가 설립되었지만 까장족들의 반대로 전기 설치를 하지 못했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컴퓨터 한 대마저 학교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교장선생님 집에 모셔 놨다고 한다.

그런 환경이다보니 교육율은 자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률이 40%도 안된다고 한다.

방과후에 숙제보다는 주로 집안일을 돕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농번기에는 며칠 씩 방학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 과반수 이상이 농사일 거든다고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까장족들도 자녀들에게 교육은 중요시 하다. 현대식 교육보다는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미풍양속을 후손들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집안의 경조사가 생기면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보름이든 한 달이든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

니라 라마단 금식기간 한 달 동안 그 지역 학교들은 모두 방학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지 요즘은 경조사도 간소화되어지고 학생들이 일주일에 사일정도만 결석을 한다고 했다.

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이라서 부끄러워 그러는가보다 하고 그 옆의 학생에게 또 물었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옆에 선생님이 아이들이 아직 인도네시아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며 통역해 주셨다. 수학 수업하는 교실로 갔더니 아까 도망가던 여자아이가 제일 앞에 앉았네. 얼마나 반갑던지 있었다. 아까 왜 도망갔는지 선생님께 질문을 부탁드렸더니 시커먼 카메라를 처음 보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까장족들도 바톤섬(P.Buton) 바우바우시(Baubau)의 짜야짜아족들이 모어(母語)만 있고 문자가 없어 우리 한글을 공식 언어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까장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하사 쏬조(Bahasa Korjo)라고 한다. 까장족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국어인 바하사(語) 인도네시아를 거의 구사하지 못했다. 그들은 국어를 배우면서 방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전과목과 국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까장족들에게도 우리 한글이 공식 언어로 사용된다면 제일 먼저 나는 그 따나또아학교로 가서 국어 시간을 참관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곰 세 마리’ 동요를 가르쳐 주고 싶다. 또 마을 모든 노인들에게 자동차를 태워 시내 구경을 시켜드리고 아이스크림을 사 드리고 싶다



인재 손인식

한인뉴스는 교민 52인이 참여하게 된 <도처고향>을 기획한 인재 손인식 선생과 짚막 인터뷰를 가졌다.

● 우선 <도처고향>출간과 기념회, 전시회를 축하드립니다. 해외 교민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일 것 같은데 기획과 발간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 예찬론자입니다. 한편의 글은 인문학 서적 한 권을 읽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 중 하나가 글쓰기 교육이며, 삶을 순정하고 아름답게 하는 요소 중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저와 제 이웃들의 어떤 대상이나 관계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히 타국에서 영위하는 삶들이니 부부, 자녀, 이웃, 신앙생활, 비즈니스 등 사람이나 자

연, 그밖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좀 특별한 애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것이지요.

● 이 책을 기획하고 발간을 진행한 인재선생 외에도 글쓰기가 52인데 그 선별 기준이 있었는지요?

선별 기준이 있을 리 없지요. 글쓰기에 찬성하는 한국인이면 되었어요. 원고 청원서에서 밝혔듯 부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삶을 글로 드러내는 일은 곧 삶의 긍정이라 생각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자기사랑 방식으로서 글쓰기일 뿐이니 선별할 이유도 기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 글을 요청할 때 글쓴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겁냅니다. 활자화된다고 하면 더욱 그렇지요. 그러나 원고를 부탁하면 손사래부터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임을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입니다.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사양은 곧 겸손임이 분명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겁내는 데는 잘 써야 한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튼 진솔하고 잔잔한 기록에 긍정적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기획의도에 맞게 예견된 이야기들로 채워졌나요? 아니면 뜻밖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반질하게 꾸민 이야기나 막장 연속극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 기획취지임을 분명히 밝혔었어요. 내용에 대한 것은 방향설정을 하지 않았으니 뜻밖의 내용이 있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도처고향> 책을 받아 본 사람이 피곤한 중에도 그 책을 다 읽고서 야 잠이 들었다니 내용이 재미있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





始原(시원)

● 52인이 쓴 글의 공통점이나 특별히 느낀 점은?

공통점이라면 해외에 사는 한국인의 심상들이 잘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이는 바로 이 책의 가치이자 특성이기도 해요. 사랑, 지워지지 않았던 회한, 화합 등 몇 가지 측면에서 맺힌 것을 푸는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삶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인은 특별한 느낌이었고 기쁨이었죠.

● <도처고향> 발간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여유와 문화적 단면이 잘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어느 한인동포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곧 인도네시아 한국인 동포사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주하는 동포의 숫자와 상관없이 역동성에 관한 한 세계 어느 한인사회에 뒤지지 않잖아요? 문화의 자생력 또한 크고 두텁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문화의 발생과 변천, 성장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유리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책의 이면을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경제활동 성과를 드러낸 점도 <도처고향> 발간의 행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러두기에 인재 선생의 <운필집 제15집>을 겸한다고 되었던군요.

이 책에는 제 작품 42점과 이에 대한 아포리즘적 단상이 함께 수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들은 제 개인전 <말할 때를 아는 침묵>으로 대중에게 선을 보입니다. 총 312쪽 중 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130여 쪽 정도이니 혹자에 따라서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웃과 함께 이루어낸 것이므로 스스로 제15 기념 집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지요.

● 프레임으로 Lesung을 활용하며, 다른 작가들의 경우와 달리 프레임까지 책에 수록을 했더군요. 특히 52인의 글 꼭지 사이사이에 작품과 창작노트를 넣는 등 이색적인 부분을 보았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조화입니다. 이 책을 조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만 들어 보지요.

첫째, 작가 외에도 52인의 한국인이 각자 삶의 이야기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이는 작가가 작품 발표를 통한 공리성 발휘 외에도 사회와 직접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의 한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삭막할 수도 있는 해외 동포사회, 특히 중간 거점으로 인식되기 쉬운 인도네시아 동포사회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든 조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종교를 넘나드는 작품의 소재와 한글 한문의 다양한 필체 시도, 글씨와 그림, 작품과 프레임, 프레임과 문양 등의 조화입니다. 인도네시아 농가의 절구통 러송(Lesung)의 자연성을 살린 프레임의 작품화를 이룬 것 또한 조화이고요. 절구통으로 오랜 세월 활용되다가 낡고 헐어져 퇴출된 것입니다. 시간의 뼈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요. 이런 자연스런 프레임에 한국의 전통 문양이나 문자 문양을 새겨 넣음으로써, 서예의 본질과 조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평면의 필묵과 입체적 새김으로 마치 또 다른 미술 장르의 느낌이 나도록 시도해본 것입니다.

●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제품이란 없다 ... 어제보다 나은게 최고

기사제공 : 최양기 편집위원

중국 기업인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窮則變 變則通)'는 정신을 체질화한 사람들이다. 『주역(周易)』의 계사(繫辭)에 등장하는 이 말은 다음 구절로 이어진다. '통하면 오래 간다(通則久)'다. 이는 오늘날 중국을 주름잡는 중국 비즈니스 맨들의 정신적인 가치다. 상황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곤궁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나아가 변화를 시도해 자리 잡을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병법의 대가로 알려진 손자(孫子)는 싸움터에서 "병력의 운용을 물과 같이 하라(兵之勢若水)"고 가르쳤다. 물은 어떤 존재일까. 우선 고정적인 형태가 없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득 찬 곳에서 빈 곳으로 늘 움직인다. 병법의 요체는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함께 조합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손자의 강조점은 비정규군을 뜻하는 기(奇)에 있다. 고정된 양식과 상황보다는 변화와 창의적인 사고를 중시했다.

앞에서 든 손오공과 손자에서 풍기는 핵심적인 코드는 변화다. 모두 싸움을 전제로 한 것들이다. 그중에서 강조하는 것은 '늘 변화라'는 주문이다. 따라서 중국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변신이 매우 큰 덕목이다. 우리는 변절과 입장을 바꾸는 것쯤으로 여겨 이 변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 주저하게 마련이지만, 중국 비즈니스맨은 결코 그렇지 않다.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하이얼(海爾)이다. 요즘 한국의 가전 시장을 강타하면서 강력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이 중국 최대 기업이 강조하는 첫째 가치는 무엇일까. 하이얼의 최고경영자 장루이민(張瑞敏)이 내세운 것은 일단 '창신(創新)'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중간에 도태된다는 강박관념을 전제로 한 구호다.

하이얼의 기업 이념 항목에는 "없는 것에서 있는 상태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큰 것에서 강한 것으로, 중국에서 세계로"라는 말이 가장 눈길을 잡아 끈다.

광동성 최대 전자업체인 메이디(美的)의 허상젠(河享健) 주석이 즐겨 보는 책은 삼국지다. 신노동법 시행으로 임금이 오르고,

량칭더 회장의 變의 세계

경영관	소비자가 변화하는대로 기업이 변하는 게 진정한 경영이다	시장관	시장은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인재관	덕과 재주를 겸비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재다	품질관	최고 제품이란 없다. 어제보다 좀 더 좋게 변하는 게 최고 품질이다
위기관	외부가 변하는데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위기를 초래한다	가치관	끊임없이 창조하는 데 최고의 가치가 있다



량칭더 거란스 회장. 그는 "변하지 않는 기업에 미래는 없다"고 말한다.

축산회사에서 세계 최대 전자레인지 회사로

- 1978년: - 광동성 순에서 구이저우 축산회사라는 향진기업으로 오리털 가공 시작
- 주장에 배수진을 치는 각오로 공장 설립
- 1992년: - 가전제품 생산을 위해 투자 시작, 거란스로 사명 개명
- 1993년: - 전자레인지 시험 생산
- 1995년: - 전자레인지 중국 시장 점유율 25.1%로 1위
- 1995년: - 미국에 연구개발센터 설립
- 1998년: - 전자레인지 600만대 생산으로 세계 1위
- 2000년: - 에어컨 생산 시작
- 2004년: - 광파 에어컨 260만 대 생산해 세계 1위, 종합생활가전업체로 변신
- 2007년: - 세탁기와 냉장고,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 20여 종 생산
- 2010년: - 세계 최고 종합가전업체 목표

20년 만에 매출 400배

1988년 1억 위안(약 133억원)

1992년 1억 8000만 위안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삼국지에서 찾고 있다. 그는 새해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삼국지를 보면 회사의 혁신 방향이 보인다” 고 말했다.

과거 중국 상인들의 행위도 다를 게 없다. 우선 중국 상인 중 변화에 능하기로는 용방(甬幫)을 으뜸으로 친다. 저장(浙江)성 Ningbo(寧波) 상인들이다. 변신에 능하고 사업수완이 탁월해 청 말 상하이(上海)의

상권 대부분을 이들이 잡았을 정도다. 위차칭(虞洽卿)은 당시 용방의 거두였다. 그는 끊임없는 변화로 상대를 제압했는데 비결은 연구와 유연성이었다.

2008년
400억 위안
(약 5조3000억원, 추정치)

사업에 앞서 상대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 뒤 회사를 변신시켰다. 그리고 사업에서는 강,온정책을 구사했다. 훗날 그는 용방의 상인들에게 도덕경(道德經)을 배우라고 요구했다. 도덕경에 나오는 ‘굽으면 온전해지고 구부러지면 펴진다(曲則全 枉則直)’는 노자(老子)의 말에서 곡직(曲直)의 병용을 터득하라는 주문이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변하라는 얘기다. 지금도 Ningbo 상인들은 그의 말을 기업 혁신의 금언으로 여기고 있다.

2007년
240억 위안
(약 3조2000억원)

춘추전국시대 월(越)나라 명재상 범려(范(882))는 성상(聖商)으로 통한다. 후세 상인들에게 처신과 변화, 그리고 상인의 도를 몸으로 보여 주고 있어서다.

2006년
180억 위안
(약 2조3900억원)

그는 월나라 왕 구천(句踐)을 도와 숙적 오(吳)나라를 멸망시킨 뒤 일등 공신이 됐으나, 곧바로 구천의 곁을 떠나 평생 상인의 길을 걸었다. 재상에서 상인으로서의 변신을 마다하지 않은 그의 용기와 해안은 범인의 범주가 아니라는 게 후세 사람들의 평가다. 상인이 된 그는 천하를 주유하며 쌀이 필요한 곳에선 쌀장수로, 도자기가 필요한 곳에선 도자기 판매상으로 변신을 거듭했다. 그리고 철저한 시장 파악과 이에 대한 대비로 천만금의 재산을 모았다. 후일 동료 상인들이 장사의 성공 비결을 묻자 땅바닥에 ‘축시승세 득시물태(逐時勝勢 得時勿怠)’라 썼다. 시장의 변화를 쫓아가고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다.

거란스의 최고경영자(CEO) 량자오셴(梁昭賢)은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소비자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거란스의 이민(利民) 경영관은 범려의 상도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 말했다.

변(變)을 강조하는 중국 기업인들의 정신 뿌리는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 속으로 뻗어 오면서 지금의 중국 기업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변화와 창의를 큰 덕목으로 치는 중국의 기업은 경쟁력 차원에서 강할 수밖에 없다.

③ 錢의 세계

귀메이의 가격 감동 “같은 제품 최소 20% 싸게 판다”

사진 찍을 때 미국인은 “치즈-”, 한국인은 “김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인은? 상하이인들은 “첸(錢: 돈)-”을 외친다.

자판기 영업이 안 되고 전자금융 시대에 오히려 전당포가 유행한다. 황금을 초박막(超薄膜: 아주 얇은 막)으로 만들어 먹는다.

모두 중국적인 현상이다. 사진 찍을 때 웃는 표정을 짓게 하기 위해 ‘돈’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자판기 문화는 돈만 먹고 상품을 내놓지 않을까 봐 자리를 잡지 못한다. 전당포는 물건과 현금이 눈앞에서 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랑 받는다. 그런가 하면 황금을 얇게 썰어 먹을 만큼 황금에 진한 애정을 보인다. 중국인다운 현금 사랑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속담도 남다르다. “돈은 귀신으로 하여금 맷돌도 돌리게 한다(錢能使鬼推磨).” 중국대륙 이곳저곳을 떠돌던 객가(客家)들이 즐겨 사용했던 속언이다. 춤을 추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맷돌을 돌린다고? 역시 돈의 가치를 가장 높게 인정해 주는 중국인다운 믿음이다.

이런 중국인들이 빚어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현금을 두고 벌이는 ‘전(錢)의 전쟁’은 세계 어느 곳보다 치열하다. 대표적인 게 가전제품의 유통 판매 현장이다. 중국인들은 매주 금요일이면 신문을 유심히 살핀다. 가전제품 광고를 보기 위해서다.

‘1만 위안(약 130만원)짜리를 5000위안

에 50대 한정 판매' '바오자(暴價:폭탄 할인) 999.50위안' '개업 1주년 특별 할인' 등. 뽀뽀이 들어찬 광고를 보고 사람들은 가게로 몰린다. 단 1위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함이다.

한 지역에 어떤 회사의 유통점이 세워지면 다른 회사 가게는 바로 그 옆에 들어선다. 둘은 살아남는 자로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벌인다. 가전제품 유통업체에서 현재 중국 최강으로 군림하는 귀메이(國美:Gome)의 황광위(黃光裕·39·사진) 회장은 이 바닥에서 신화를 일궈낸 인물이다.

2004년 황 회장은 중국 최고의 갑부 반열에 올랐다. 멀리 광둥(廣東)에서 베이징으로 올라온 지 20년 만이다.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가격 전쟁의 피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평가를 달리 표현했다.

“결론부터 말하자. 귀메이가 저가(低價)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했다는 건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저가 판매는 의도적·악의적으로 가격 전쟁을 일으켜 경쟁사를 거꾸러뜨리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손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손님을 위할 수 있을까 하는 일념에서 나왔다. 난 이것이 진짜 ‘가격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말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단돈 4000위안(약 52만원)을 갖고 상경해 20년 만에 최고 갑부 대열에 섰다는 사실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현재 재산은 450억 위안(약 5조8500억원)이다. 매년 중국 부호 랭킹을 매기는 후룬(胡潤)에 따르면 황광위는 중국의 넷째 부자다.

그의 과거를 보자. 1969년생인 그는 광둥성 산터우(汕頭) 출신이다. 집안이 가난해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형을 따라 네이멍구(內蒙古)에서 노동을 했다. 1년간의 모진 고생 끝에 4000위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17세이던 86년, 그는 베이징으로 올라와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린 한 패션쇼에 등장한 '런민비(人民幣) 패션'. '돈은 귀신으로 하여금 멧돌도 돌리게 한다' 는 중국 속담을 연상시키는 의상이다. 중국 기업인들은 단돈 1원이 남아도 기꺼이 사업에 나서며 시장 장악을 위해서는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전(錢)' 을 향한 13억 중국인의 질주가 시작 된 것이다.

100㎡ 크기의 구멍가게를 열었다. 귀메이 전기의 첫 탄생이다. 그 후 귀메이는 네 차례에 걸친 대규모 확장을 통해 베이징의 가전제품 소매시장을 석권했다.

귀메이는 출범 10년 동안 줄곧 가격 전쟁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귀메이의 물건은 항상 주변 상가의 같은 제품에 비해 최소한 20% 이상은 싸다.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음은 물론이다. 현재 귀메이는 전국 67개 도시와 홍콩 등에 30개 지사, 200개 매장, 4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황 회장은 원칙부터 얘기했다.

“원칙이 없는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이다. 내 원칙은 3가지다. ‘소비자 지상주의, 소매 판매 고수, 박리다매’다. 내가 가전 소매업에 손을 댔을 때 거의 모든 상인은 ‘가격 상승=두툼한 이윤 확보’라는 방식에 매달려 있었다. 나와 형은 이래선 오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익에 대해선 철저했다. “취해야 할 이윤은 반드시 취한다. 그러나 취해선 안 될 이윤은 절대 취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취해서 안 되는 이윤을 취하면 그 이윤이 곧 사라지는 것은 물론, 취해야 할 이윤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그에게 어떻게 저가 판매가 가능했느냐를 물어야 할 차례다.

그는 이 문제를 ‘파이프 이론’으로 설명했다.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흐름을 하나의 파이프로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3단계를 가로막았던 중간상이란 존재는 과감하게 걷어냈다. 지금은 일반적인 얘기지만 당시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발로 뛰었다. 생산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고, 유통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을 마련했다. 매장은 깔끔하게 정리했고, 손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폈다. 물건 대금, 직원 월급은 최소한 하루 전에 지급했다.

자연히 물건 원가가 떨어졌다. 심할 경우 40% 이상 낮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황 회장은 구입가 하락분을 감안해 제품 가격을 최대한 싸게 책정했다. 발로 뛰고, 사람을 설득하고, 이리저리 부탁해 내린 원가 하락의 혜택을 손님에게 돌린 것이다. 손님이 안 물리는 게 이상한 상황이다.

주변 업체가 흔들렸다. 93년 베이징 내 소매 유통 강자인 귀하오(國豪), 아화(亞華), 형지(恒基)가 모두

귀메이로 흡수됐다. 99년 귀메이는 마침내 수도 베이징을 벗어났다. 텐진(天津)을 돌파한 뒤 5년 만에 홍콩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전국적인 유통망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황 회장은 98년 50억 위안의 자본으로 펑룬(鵬潤)투자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이후 금융과 부동산에도 진출했다. 아주 작은 이문도 놓치지 않는 그의 기질, 그리고 똑같은 심리의 소비자를 겨냥하는 저가 전략으로 그룹 건설의 꿈을 이룬 것이다. ‘전(錢)’에 대한 무서운 집착이 일궈낸 결과다.



중국의 돈 관련 격언들

- ▶ 사람은 재물을 위해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을 수 있다(人爲財死, 鳥爲食亡)
- ▶ 돈은 신과 통한다(錢能通神)
- ▶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 없으면 절대 안 된다(錢不是萬能的, 沒有錢是萬萬不能的)
- ▶ 이익을 위해서는 의를 잊는다(見利忘義)
- ▶ 돈은 모든 것을 붙이는 아교(錢是萬能膠)
- ▶ 돈이 걷는 길은 끝이 없다(錢途無量: 앞날에 발전 있으리라는 뜻의 ‘前途無量’ 을 비튼 것)
- ▶ 오로지 돈을 향하라(向錢看: 앞을 내다본다는 뜻의 ‘向前看’ 을 패러디)
- ▶ 오로지 노릴 것은 이익이다(唯利是圖)

바하사



글 : 허영순 번역 작가 (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 제공 : KORINDO/KBS WORLD INDONESIA



가족이건 연인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조바심 내고,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월에 피는 꽃이 있고 6월에 피는 꽃이 있고, 몇 년 만에 한번 피는 꽃이 있듯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많이 남은 인생에 가치 있는 사랑을 위하여 때를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늦게 피는 꽃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인과 그 가족들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또 늦게 만났지만 각자의 연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려고 노력 합니다.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억박지르고 나무라는 것은 당장 태도의 변화를 주긴 하겠지만, 그 마음 자세까지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 사람을 감동 시키고 끌어 주는 사람은 늘 부드러워 자연스레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여 주인공 수인은 결혼 후 본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 가족들에게 부드러움으로 진

정으로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화합하는 가정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Pelabuhan hati) 이 종영 되고, 새 일일 드라마 “다 함께 차차차” 가 시작 되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남편을 잃은 동서 지간인 두 여자와 그의 시어머니 삼 과부 집 이야기지만 다소 유쾌하고 혈연 관계에 아니지만 친 가족처럼 때론 웃고 때론 울고, 화를 내기도 하고 좌충우돌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 갑니다.

삼과부가 남들이 보기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또 행복 히 사는 모습을 그리며 각자의 기준대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화면으로 시작하는 “다 함께 차차차” 트롯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인도네시아도 가믈란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춤을 출 때 Berdansa(춤을 추다 외) Berjoged이라 표현 합니다. 일반 댄스와 구별되는 춤 입니다.

새 일일 드라마 “다 함께 차차차” 인도네시아 제목은 “차차차”의 뉘앙스를 최대한 전달 할 수 있는 “MARI BERJOGED” 으로 했습니다.

춤이란 인간의 육체를 매체로 삼아 감정, 사상, 정서를 율동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무용을 말합니다.

인도네시아 말에도 춤 추는 몸의 형태를 표현 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Goyang, Ayun, Berjoget

(가볍란 음율의 아름다움/hips을 이용해 추는 춤을 일컬음)

Tari, Berdansa, menari, bergoyang pinggul,

(허리를 이용해 추는 춤을 일컬음)

그 동안 마음 고생만 하던 수인에게 싱글맘 다큐멘터리 우수 작품상 수상, 본인을 그렇게도 미워하던 시어머니에게서 책상을 선물 받는 등 좋은 일들이 연이어 생기자 수인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둘째 딸이 묻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여.

Kau **terlihat** sangat bahagia



응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더니

Iya. Kata orang **berkah** datang **bertubi-tubi**.

Terlihat ~으로 보여지다. 나타나는 의 뜻을 가지며 어근은 **Lihat** 보다, 관찰 하다 입니다.

Berkah 또는 **Berkat**으로 신이 주는 축복(좋은 일, 복)을 뜻하며, 어떤 이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당시의 도움으로 라는(Karena bantuanmu atau berkah bantuanmu)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Mr. Kim, Aku lulus ujian dengan nilai tinggi **berkah(Berkat) bantuanmu.**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은 김선생님 덕분 입니다.

Mr. Kim, Aku lulus ujian dengan nilai tinggi **karena bantuanmu.**

bertubi-tubi 어근은 **Tubi**로 일련의 일이나 행동 (서로 다른 형태의 일이나 행동이지만)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사용되며 **Berturut-turut**(어떠한 기간이나 행사 등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날 때)과 함께 사용됩니다.

Berulang-ulang 같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Terus menerus**와 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났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숙어와 구별되어 사용됩니다.

예)

Berturut-turut

Pesta itu diadakan selama 7 hari berturut-turut. 그 파티는 7일간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다.

Berulang-ulang

Aku berulang - ulang mengerjakan latihan soal ini hingga aku bisa. 반복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습문제를 풀었더니 할 수 있다.

Terus menerus

Dia terus-menerus memakan buah jambu itu. 그는 계속해서(쉬지 않고) 구아바를 먹는다.



술약국집 아들들

Putra-putra Kebanggaanku

Bertubi-tubi

Aku tertimpa masalah bertubi-tubi. Aku terpeleset, tertimpa tangga lalu jatuh ke kolam, 문제가 연달이 발행한다. 미끌어지고, 넘어져 연못에 빠졌다.

김복실 간호사가 나가고 난 뒤에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고 미친듯이 김 간호사를 찾아 헤매던 대풍, 병원도 닫고 방에 처박혀 귀찮이즘에 빠져 지내다 드디어 마음 정리하고 대학 병원 소아과 의사로 취직 했는데, 바로 김 간호사 아버지 병원 이었다. 김복실 간호사와 복도에서 마주친 대풍은 반가운 마음에 주의 시선 무시하고 김간호사가 아닌 제니퍼,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복실 간호사를 와락 껴안으며, 김복실 간호사임을 부정하는 김간호사에게 말합니다.



김간 또 머리 안 감았어? 복실이 맞네!

Suster Kim, kau tak keramas lagi?

Kau memang Bok sil

(Ber)Keramas 두발을 세척하다, 머리를 감다, 샴푸 하다는 뜻으로 **Mencuci rambut**으로 사용 되기도 하지만 몸을 씻다(**Membersihkan badan**) 보다 목욕 하다(**Mandi**) 라는 단어를 사용 하듯 머리를 감을 때는 **Keramas**를 사용 합니다.

Memang은 **Sebenarnya**(사실은)와 같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 하거나 확인 또는 설명 할 때 사용 됩니다.

예)

Memang dia gadis pantai.

(원래/ 맞아요)그 소녀는 똑똑 합니다.

Dia memang ingin pergi ke Paris tapi rencana itu batal.

(사실) 그는 파리에 가고 싶어 했으나 계획이 취소 되었어요.

Sebenarnya dia ingin pergi ke Paris tapi rencana itu batal.

(Memang은 문두 또는 문 중에 위치 할 수 있으나 Sebenarnya는 문두 또는 문미 에 위치 합니다)

Keadaannya memang menyedihkan.

(사실) 상황이 비참 합니다.

The 8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제8차 세계한상대회

한상(韓商)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Hansang, the Future Hope of Korea !



제8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7일 부터 사흘간 인천에서 “한상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됩니다. 교민 기업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대회개요

- 가. 기 간: 2009년 10월 27일(화)~10월 29일(목)
- 나. 장 소: 인천 송도컨벤시아(Songdo Convensia)
- 다. 규 모: 내·외 동포 약 3,500 명
- 라. 주 최: 재외동포 경제단체
- 마. 주 관: 재외동포재단, 인천광역시, 매일경제신문·mbn
- 바. 슬로건: “한상(韓商)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등록안내

- 온라인: 대회등록사이트(www.hansang.net)를 통한 등록 신청
- 오프라인: 온라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 Fax 또는 이메일로 한상대회본부사무국에 신청
- 사전등록 기간: 2009. 5월 ~ 7월 31일

□ 등록비 및 등록비 포함내역

국외 참가자

기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기간	2009.7.31까지	2009.10.27(대회당일)
등록비	USD 350	USD 450
등록비 포함내역	① 숙박제공 : 2009.10. 27 ~ 29 (3박, 2인1실) 1인1실 사용 및 동반가족 1인당 USD 350 추가부담 ② 프로그램 참가 :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미나, 문화행사 등 전체 프로그램 참가 ③ 식사제공 : 총8회 - 행사장 : 10. 27 만찬, 10. 28 ~ 29 오·만찬 - 숙소 : 10. 28 ~ 30 조식 ④ Convention Kit, 한상기업디렉토리, 각종 기념품 제공 ⑤ 숙소-행사장간 무료 교통편 제공	

□ 등록비 지불 방법

등록비 납부 계좌

구분	국외 참가자	국내 참가자
은행명	Hana Bank Sechoo-Nam Branch	하나은행
계좌번호	224-910002-55132	224-910001-89805
예금주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Swift code	HNBKRSSE	
은행주소	1354-5, Seochoo-dong, Seochoo-gu, Seoul, Korea	

□ 등록 취소 및 변경

등록이 완료된 후 등록에 관한 취소 및 변경 사항은 서신으로 작성하시어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하여 2009년 9월 30일 까지 한상대회 본부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람.

2009. 9. 30까지 100% 환불 / 2009. 10. 1부터 환불 불가

*환불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대회가 끝난 후 은행 송금 방식으로 진행.

*환불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환불자 부담.

□ 등록 확인

등록신청서 접수와 등록비 결제가 확인되면 사무국에서 등록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등록확인증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 세계한상대회 본부사무국

전화: 82-2-3415-0150

팩스: 82-2-3415-0118

이메일: hansang@okf.or.kr

담당: 재외동포재단 한상팀 오은아 대리

- 영화 감상문 -

하늘까지 이루어지고 싶은 데니아스

2006년에 교육에 대한 영화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까지 교육에 대한 영화는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데니아스, 구름 위에 있는 노래” (Denias, Senandung Di Atas Awan)입니다. 그때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랑과 귀신에 대한 영화가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주제를 지루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인도네시아 교육 상태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 영화도 실제 이야기입니다.

데니아스는 빠뿌아 섬 내륙에 있는 부족 아이이고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빠뿌아에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과 족장의 아이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데니아스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었습니다. 데니아스의 어머니는 “산은 똑똑한 학생에게 경건하다”고 말했고 데니아스는 그 말을 아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빠뿌아 섬 내륙에 있는 부족에게 산은 하느님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데니아스의 시골에서 무너져 가는 학교가 있었는데 지진 탓에 그 학교는 쓰러졌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아내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데니아스의 선생님이 자바에 가야 했습니다. 데니아스도 말레오(Malleo)라고 부른 인도네시아인 친구와 벗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데니아스는 말레오와 떨어졌습니다. 데니아스는 똑똑한 아이이기 때문에 데니아스의 선생님과 말레오는 데니아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매일 매일 선생님은 ‘Jack And The Bean Stalk’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데니아스는 Jack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서Jack은 구름에서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데니아스는 시골에서 도망갔습니다. 자야뿌라 (Jayapura) 시에 갔습니다. 사실 데니아스의 아버지는 데니아스가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야뿌라에 도착했을 때 데니아스는 Freefort 회사의 학교에 공부하고 싶었지만 부족장의 아이나 부자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데니아스는 교육을 차별하는 것을 알게되었고 아주 슬펐습니다. 슬펐을 때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데니아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 착한 선생님의 이름은 삼 선생님입니다. 결국에는 데니아스가 똑똑한 사람인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Freefort 회사의 학교에서



실피 피뜨리 아유
인도네시아 대학교 (U.I)
한국학과 4학년



인니 신종인플루엔자(H1N1) 유행 주의

1. 동포 주의사항

○ 2009.7.14(화)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는 26명(남성 11명, 여성 15명)의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추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총 112명(남성 63명, 여성 49명)의 환자가 확진환자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환자는 자카르타 16, 반똌 6, 수라바야 1, 마나도 2, 메단 1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금까지 일자별 확진환자 발생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6.24 2명, 6.29 6명, 7.4 12명, 7.7 8명, 7.9 24명, 7.12 12명, 7.13 22명, 7.14 26명

○ 이와 관련 동포 여러분께서는 건강 및 위생에 특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출후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시고, 접촉 38도 이상의 발열·오한·두통, 기침·인후통·콧물·호흡곤란, 근육통·관절통·피로감 또는 구토·설사 등 인플루엔자 증세가 있

으신 경우에는 의사와 즉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카르타에서는 Sulianto Saroso(국가지정 격리병원), Gatot Subroto, Pondok Indah 병원 등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격리 및 치료중입니다.

2. 신종 인플루엔자 추정 사망환자 발생

○ 한편, 2009.7.15(수) 영자지 자카르타 포스트는 보건부 대변인의 말을 빌려 인도네시아내 2명의 환자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정확한 사인을 규명중에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7.12(일) 서부수마트라 빠당의 자밀 종합병원에서 H1N1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9세 소년이 사망했는데, 병원측에서는 현재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함

- 7.14(화) 발리 상라 병원에서 53세의 인도네시아인 남자가 신종 인플루엔자 증세로 입원한 뒤 5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하며, 병원측에서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함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니아스는 호주로 국비장 학생으로 갔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재미있고 교육적이고 감동적이어서 감명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빠뿌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데니아스는 도시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시골에서 도망갔을 때 4일 동안 밀림, 강, 산과 황무지를 지나갔습니다. 이 여행을 하는 동안 데니아스의 생각은 항상 “하늘에 도착하고 세계를 볼 수 있기 위해 저는 Jack처럼 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데니아스에게 꿈을 이루어지기 위한 동기가 됐는데 이 여행은 하늘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빠뿌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서 이 영화의 제일 좋은 부분은 영화의 세팅입니다. 데니아스의 말을 통해 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자극합니다. 그렇지만 좋아하지 않은 영화의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충실하기 위해 데니아스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때 데니아스의 아버지의 한 손가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이 것은 데니아스의 부족전통문화이지만 아주 무섭게 했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운명에게 항복하지 않은 것, 높은 정신과 꿈꾸기 위해서 용기있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영화도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사회 평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아스처럼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 합니다. 제 생각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 나라를 좋게 만들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데니아스처럼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돈과 시설이 없지만 높은 정신과 최선의 노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빠뿌아 국민의 생활을 봐서 저는 슬렸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멋진 영화입니다.



“시대차이가 아니라 세
대 차이거든!

“어 그래?”

서슬이 시퍼렇던 승희
가 민망한지 슬그머니 말을
얼버무린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세대차이나 엄마’가 아니
라 ‘시대차이나 엄마’란다. 물론 무식의 자유분방함
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그때 마다 나를 웃긴
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언어 선택이 어찌 그리 용
감하신지 모른다.

책을 좋아해서 늘 한 달에 5권 정도의 책은 꼭 사는
아빠, 작가라는 특성상 책을 안 읽으면 양심의 가책까
지 느끼는 엄마를 둔 승희는 책과 그리 친한 편이 아
니다. 승희의 독서 스타일은 ‘필요해야만 읽는다’ 주
의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무슨 타이
틀을 건 글쓰기 대회가 있으면 열심히 써서 종종 상
을 타오곤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읽으라고 한 책은
무조건 성실하게 읽는다. 하지만 그게 독서의 전부이
다. 승희의 글쓰기는 다분히 기획적이다. 창의성이 없
다. 그런 독서스타일이 승희의 무식함을 키우는 것이
다. 물론 나의 강제적인 권유 때문에 미하엘 아엔데
의 작품과 섹스피어의 작품 등을 읽기는 하지만 책
을 좋아하고 몰입하는 아이는 아니다. 그거 필독해야
한다니까 읽고, 신문 기사도 스크랩해주는 것만 읽는
다. 가만히 보면 승희는 책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아
이는 아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따로 있다. 정말 좋아하는 아

이는 책을 읽는 동안 가
슴이 뛰고 책갈피를 넘
길 때마다 아까워서 어
쩔 줄 모른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갈 때 놀이
공원 가는 것처럼 가슴이 뛰
다면, 내가 짐 해 놓은 책을 누

가 먼저 빌려가지는 않았는지 조바심
을 느끼며 계단을 두 칸씩 뛰어 오르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 정말 책을 사랑하는 아이이다.

혹시 그런 아이가 세상에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렇다고 대답하겠다. 그런 아이는 분명 있고, 난 그런
아이를 알고 있다.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한 영악한 독서는 의미가 없
다. 머리에 남질 않는다는 이야기다. 독서는 그 자체
가 주가 되어야 한다. 읽고, 느끼고, 생각하고, 나아가
깊이 사고하는 것이다.

종종 엄마들이 쇼핑백 한 가득 책을 싫어 나르며 아
이들에게 읽으라고 권할 때 한 번쯤은 나는 내 아이만
한 나이 일 때 이만 큼의 책을 읽었는지 자문해 볼 일
이다. 책에 코 박고 잔 엄마들이 더 애들에게 책을 읽
으라고 강요하고, 아이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 책가방
에 책을 열 권씩 넣어가지고 부지런히 실어나른다.

엄마가 어깨가 빠져라 가방에 담아 나르는 책을 아
이는 눈으로 만 읽을 수 있다. 책은 마음으로 읽어야
뇌리에 각인 되는 법이다. 아이에게 책을 읽히기 전에
그 아이가 읽을 책을 먼저 읽어 본다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준강
소설가, 카피라이터

그런 의미에서 승희의 독서 수준은 내가 봐도 그냥 그렇다. 목청껏 소리 높여 책을 읽으라고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이젠 방법을 바꿔서 내가 읽는 신문의 좋은 기사를 스크랩해서 승희와 지영이에게 읽어보라고 권하는 정도이다.

독서는 숲을 산책하는 것과 같다. 독서를 통해 인생이라는 거대한 숲을 산책 하다 보면 자기만의 길을 찾기도 한다. 숲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집안에 책을 도처에 놓아두기도 했지만 승희는 여전히 숲을 탐험하는 데는 관심 없고, 숲 주변의 놀이동산에만 관심이 많다. 그러니 승희가 무식할 수밖에. 그래도 본인은 너무나 위풍당당하다.

읽으라고 준 제인에어는 방 바닥에 뒹굴고, 샤이니와 슈쥬, 빅뱅 청년들의 얼굴이 벽을 도배하고 있으니 참, 청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할말이 없어진다. 그저 그들은 왜 거기 있냐? 라고 묻고 당장 떼어내고 싶지만 워낙 신주단지 위하듯 하니 그냥 웃고 만다.

나는 저러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나 역시 <듀란듀란>의 존 테일러에 뺨이 가서 문제집엔 그의 사진을 붙여두었고, 책받침은 언제나 장국영의 사진이 박힌 책받침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책을 읽었다. 도대체 승희는 얼마나 무식쟁이가 되려고 책을 안 읽는

지 모르겠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빅뱅의 <세상에 너를 소리쳐!>이다.

이젠 수쥬를 버리고 샤이니란다. 이런 젠장. 아무리 시대가 전광석화라지만 이리 쉽게 우상을 바꿀 수 있나? 도무지 애들에게 일편단심이란 단어는 없나 보다. 하긴 승희는 일편단심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게다. 아마도 그게 무슨 딱 한 조각인줄 알 것이다. 절편이니 증편이니 하는 떡들의 이름은 들어서 알 테니까.

그런데 오늘은 승희가 중국어 한자를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다. 한국에서 한자시험을 보긴 했지만 다른 가보다. 고사성어도 안 외우던 승희가 오직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얼마 전엔 영문으로 된 <명탐정 홈즈>를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행히 <명탐정 홈즈 시리즈>는 한국에서 다 읽고 온 터라 좀 수월했는가 보다. 드디어 책은 읽어두면 어떤 식으로든 쓸모가 있다는 걸 안 것 같다. 그러나 그뿐이다. 리포트를 제출한 이후로 책은 바이다.

독서에 관한 한 철저히 실용주의 독서법을 실천하는 나의 딸이 제발 독서라는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어정쩡한 공부보다는 책에 몰입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승희, 제발 독서 좀 해 주렴! 무식어록만 만들지 말고. 책을 읽지 않는 자는 인생의 키를 제대로 찾아낼 수가 없단다. 설혹 찾더라도 너무 돌아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만은 알아다오.





단체협약 주요 쟁점 사안-3

이번 호에서는 지난 달에 이어 단체협약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안 중에서 휴가와 관련 법적 규정 및 관리방안, 단체협상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휴가 관련 규정 및 내용:

1. 경조휴가(Cuti Suka dan Duka Cit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4)항

- a. 근로자 결혼 3일
- b. 자녀 결혼 2일
- c. 자녀 할례 2일
- d. 자녀 세례 2일
- e. 배우자 출산 또는 유산 2일
- f.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며느리 사망 시 2일
- g. 동거 가족구성원 사망 1일

2. 연차휴가(Cuti Tahunan):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2)항 c: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연속으로 12개월간 근무시 최소 12일간의 휴가 부여

3. 출산휴가(Cuti Bersalin):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82조:

- a. 여성 근로자는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 의사의 진단에

근거하여 출산전 1.5개월, 출산후 1.5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한을 갖는다.

- b. 여성 근로자는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 의사의 진단에 근거하여 1.5개월의 휴가를 받을 권한을 갖는다.

4. 생리휴가(Istirahat Haid):

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2)항 b:

여성근로자가 생리통으로 인해 생리 첫째날과 둘째날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b.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81:

- 1)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중 생리통이 있으며 사용자에게 통보 했을시 생리 첫째날과 둘째날에 작업에 종사할 의무가 면제됨.
- 2) 상기 1)항의 세부 시행령은 근로계약서, 사규 또는 단체협약서 상에 정한다.

5. 의병휴직(Istirahat Sakit Berkepanjangan):

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2)항 a: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b.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172조: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



방치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와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제 156조(2)항의 해고보상금 2배, 제156조(3)항의 근속보상금 2배, 제156조(4)항의 손해보상금 1배가 지급된다.

c.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3)항:

근로자 질병시 급여지급은 아래와 같다.

- 1)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 2) 두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 3) 세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 4)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6. 장기휴가(Istirahat Panjang):

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79조 (2)항 d:

장기휴가는 연속적으로 6년간 동일 회사에 근속한 사원에 대해 최소 2개월간 휴가를 부여하는데 근속 7년차, 8년차에 각각 1개월씩 부여하며 해당사원은 장기휴가 실시 2년간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후 6년 주기로 장기휴가 적용된다.

b. 장기휴가 실시에 관한 '04년 노동부 장관령 제51호

1) 제2조:

장기휴가를 실시할 의무를 갖는 회사는 본 장관령 제정 이전에 장기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2) 제3조:

(1) 근속 제7년, 제8년차에 장기휴가를 실시하는 근로자는 해당 연도 연차 휴가에 대한 권리가 없다.

(2) 장기휴가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급여에 관한 권한이 있으며 8년차의 장기휴가 실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50%의 월 급여를 지급한다.

(3) 상기 (2)항의 급여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으로 구성된다.

II. 관리 방안

1. 경조휴가:

상기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항은 허용 최저 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경조사 발생시 기준 이하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여 최소한의 기준 휴가 일수는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단체협약시 마다 항상 등장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가급적이면 상기 법적 규정 범위내에서 tight하게 관리하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한번 조정된 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협상시 대응 논리로써는 회사의 연간 휴무일수를 계산하여 수치로써 제시를 하는 방안이 있음. 예를 들자면 주 5일 근무 회사의 경우 연간 주 휴무 일수가 104일, 공휴일이 17일(주휴 중복일 제외), 연차 휴가 12일 등을 계산하면 기타

휴가(경조, 출산, 생리휴가, 병가, 장기휴가) 등을 제외하고도 133일 즉 연간 4개월 이상의 휴무일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 회사 운영상 부담이 적지 않은 부분임을 피력하여 노조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는 12개월 연속 근로사원에 게 연간 12일간의 연차휴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휴가의 유효기간은 발생일 기준 1년간이며 유효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휴가권은 자동 소멸되도록 되어있다. 단,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사원에게 휴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6개월간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통상 연차휴가의 사용은 르바란 휴무시 일부(통상 3일~6일)를 사원전체가 공동으로 사용 및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 휴가일수를 개인 사정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일부 회사에서는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을 하는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의 전반적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든다.



3.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상에는 출산 전후 각 1.5개월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출산 여사원의 경우 출산 전보다는 출산 후에 보다 많은 휴가를 확보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여사원의 건강상 특이 사항이 없고 회사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면 출산전 1개월 출산후 2개월 등 다소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생리통으로 인해 생리 첫째날과 둘째날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전 일부 회사에서는 여사원 생리여부 확인을 위해 속옷까지 확인하여 사원들로 부터의 반발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바가 있는데 이런 물리적 관리는 인권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무리하게 생리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생리휴가 사용시 문제를 삼는 것 보다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사원과 그렇지 않은 사원들에게 차별을 둬으로써(예를 들자면 만근수당의 지급)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쓰지 않는 쪽으로 유도함이 바람직 하다. 또한 생리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원들의 생리휴가를 돈으로 박탈했다고 자칫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노동부에서도 휴가는 휴가를 위한 것이지 금전으로 대체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음) 따라서 가장 바람

직한 관리는 위의 예와 같이 사원이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하지 않는 사원의 경우는 적치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만근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유도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의병휴직:

1) 병가의 관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원이 의병으로 인하여 결근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병가중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일부 사원들은 이를 악용하여 휴무일 전후 결근 또는 상습 결근, 허위 진단서 제출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대한 관리로써는 병가가 잦은 사원에 대한 행태 관찰(보통 휴무일 전후로 병가를 내는 사원이 많음) 및 사원이 제출한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진단서를 돈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음)하고 의심사원에 대해서는 면담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건강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의병휴직 등으로 조치하고 그 병이 위중할 경우는 의병으로 인한 퇴직을 유도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태도에 문제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사원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조치 및 근무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진단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병가 관련 결과를 업무 고과시에 반영 및 진급이나 급여 조정시에 활용함으로써 해당 사원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관리함은 물론 열심히 근무하는 사원과의 차별화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2) 의병휴직의 관리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고보상금 지급을 통해 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고 완료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두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세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대응방안으로써는 의병 휴직중인 사원중 복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원에 대해서는 의병휴직 기간인 12개월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원과 면담하여 적절한 해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정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6. 장기휴가:

1) 법적 근거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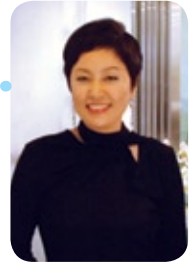
“`03년 근로기준법 제79조 (2)항 d”에 따르면 “근속 6년 이상 사원에 대해 근속 7, 8년 차에 각 1개월씩 장기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장기휴가 실시는 특정회사 관련 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라고 그 적용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04년 발표된 노동부 장관령 제51호 제2조에서는 “장기휴가를 실시할 의무를 갖는 회사는 본 장관령 제정 이전에 장기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제 장기휴가 실시 의무를 갖는 회사는 `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부터 장기휴가를 실시해오고 있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2) 대응 방안:

장기 휴가 역시 매년 단체협상시 마다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중의 하나인데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기휴가 요구를 수용하였을 경우 상당한 노동력의 손실을 초래하게 됨으로 가급적 최대한 노동대표를 설득하여 수용 없이 넘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대응방안으로써는 장기 휴가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회사 경쟁력 저하 및 Operation의 어려움 피력하고, 위에 언급한 바가 있는 전체 휴가 일수가 결코 적지 않음을 상기 시키고 또한 장기휴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김은미 편집위원의 이달의 추천 도서



“...도대체 갈수록 삶이 재미없는 이유는?
아, 그렇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쨌단 말인가
입 쾅지가 내려간 만큼 우리는 불행해진다
‘아침형 인간?’ 이건 정말 아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이 사실이 나를 자유케 한다
인생이 재미없는가? 원근법으로 보라
남자들은 주말마다 골프장으로 탈출한다... “
대개 재미위주로 쓰인 책은 인스턴트음식같이 읽은
후 불쾌한 포만감만 남는다.

맛깔나고 유쾌하면서도 영양가가 넘치는 책을 꼽으
라면 이 책이 으뜸일 것이다.

‘재미는 창조다’라는 키워드로 SERI CEO, 월간조선,
신동아 등에 절찬리에 연재되었던 김정운 교수의 칼럼
을 새롭게 재구성한 저서이다.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니? 일견 부부관계에 대
한 책 혹은 무모한 남자들의 로망에 대한 책으로 비취
질 수도 있다.

어느 순간까지는 ‘무작정’ 달려온 남자들, 그들이 왜
어느 순간 자아를 상실한 느낌이 드는지,

권위의 의무감에 탈출구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지, 어디서도 지친 영혼을 누일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지, 그것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서이기도 하다.

재미없는 삶은 무효이며 세상의 억압과 허무에 맞서
는 힘없는 남자의 항거이다.

왜 남자들은 항상 폭탄주에 취하고, 골프에 목숨을 걸

며 죽을것처럼 일에만 매진할까?

그리고 왜 여자들은 더이상 남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훌쩍 외국으로 가
버리는걸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
다고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고통이나 아픔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생체
신호다. 이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혹 방치한다
면 나중에 더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오래동안 잊고 있던 그 신호를 더듬어 찾
아보게 하는 김정운교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계경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을 한눈에 보고 한인기업인들의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대사관에서 매주 정리되고 있는 <경제주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지표/경제동향

● 인니 중앙은행, 2010년 경제성장률 5% 예상

인니 중앙은행(BI)은 인니 경제가 2010년에 경제성장률이 5%를 달성할 것이며 물가상승률은 5%(오차 1%)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Budi Mulia 중앙은행 부총재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소비증진에 따른 수출의 증가로 2010년 인니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중에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은행, 14개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약속 감독

Darmin Nasution 인니 중앙은행(BI) 신임 부총재는 인니 금융업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14개 은행과 시중금리인하를 위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중은행들은 향후 3개월 동안 중앙은행 기준금리보다 1.5% 높은 금리만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으며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이행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 부총재는 시중은행이 동 약속을 어겼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동 부총재는 인니 은행업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동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미 외국계은행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6.5%이다.

● 정부와 국회, 부가세법 개정안에 환급 내용 포함기로 합의

Vera 국회 부가세 및 사치세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부가세와 사치세의 환급 내용을 개정법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현재 어느선까지 환급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급을 위한 최소 구매액을 5백만 루피아(환급액 규모는 50만 루피아)로 제시하고 있으며 반면 국회는 최소 구매액을 5백만 루피아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환급을 통한 세제혜택은 주로 국내에서 쇼핑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향후 항공편, 주로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구매가

환급 대상이 될 것이며 구매자는 환급을 받기위해 여권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환급 대상이 되는 구매건은 국외 출국 한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Darussalam 국립인도네시아 대학교 tax center 연구원은 부가세의 경우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에 대한 세금이니 만큼 동 환급은 부가세법에 의거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 8월 판중쁘리옥 항구의 수출 적체

8.1 이후 판중쁘리옥 항구를 통해 수출되는 제품들이 적체되고 있다.

이러한 적체는 정부가 관세청장령(P-40/BC/2008)을 통해 모든 수출/수입 제품들이 세금외납부액(PNBP)을 매 수출/수입시 납부하도록 새롭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동령 시행 이전 수출업자들은 한달에 한번씩 PNBP를 모아서 납부했었다.

동령은 수출건의 경우 8.1일부로, 수입건의 경우 8.15일부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PNBP 납부는 만디리 은행 판중쁘리옥 지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수출입건으로 인해 만디리 은행 판중쁘리옥 지점의 업무가 정체되고 있으며 수출이 지연되고 있다.

Amelia Achyar 인니 수출업자 협회(IEI)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어 수출업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PNBP가 단지 6만루피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차라리 PNBP를 폐지하는 것이 정부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13부로 만디리 은행 판중쁘리옥 지점 이외에 BRI, BNI 은행 판중쁘리옥 은행 지점으로 납부처를 확

대했으나 수출지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Muchtasor 인니보세구역사업자협회(APKB)는 현재와 같은 문제들이 관세청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PNB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순다해협 대교 건설사업자 공개입찰 예정**

자와섬과 수마트라 섬을 잇는 순다해협 대교의 건설사업자 공개 입찰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하지만 Paskah Suzetta Bappenas(국가개발계획부) 장관은 PT Bangungraha Sejahtera Mulia 사의 Pre-study 내용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관련 지방정부인 반뜰주와 람뽕주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으므로 정확한 입찰시작 일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동 대교는 왕복 6차선에 폭 60m의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 **인니 조달청, 인니가 소금 수출국이 될 것으로 희망**

Mustafa Abubakar 인니 조달청장은 조만간 인니가 소금 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 조달청장은 2007년 조달청이 독점적인 쌀 수출업자로 지정된 이후 금년도에 쌀 자급 달성 및 쌀 수출을 이룩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조달청의 쌀 관리의 경험을 토대로 소금의 수출도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idayat 인니 상공회의소 회장은 인니는 소금을 수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과감히 소금 수입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PN Garam에 대

한 정부의 지원과 동회사의 개혁을 통한 생산성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ICW, 동기-스노로 LNG 프로젝트 재검토 요청**

동기 스노로 LNG 프로젝트의 LNG 판매가격은 국제유가를 배럴당 70달러로 가정했을 때 6.16달러/mmbtu이며 이는 이미 최선의 협상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Indonesia Corruption Watch는 정부가 동 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동 프로젝트가 향후 15년간 국가에 50~54억 달러의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Medco 에너지의 Lukman 이사는 동기-스노로 지역의 LNG 가격이 인니가 받은 역대 최고의 가격이라고 평가하고 ICW 측의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요청했다.

● **노동부장관, 실업문제의 해법은 교육에 있다고 언급**

Erman 노동부장관은 인니가 직면한 문제는 실업이 아닌 교육이며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결과가 실업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동 장관은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직업학교가 장려되어야 하며 직업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니 고등학교 진학 학생 중 80%가 직업학교로, 나머지 20%가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현재는 60%의 학생이 직업학교로, 나머지 40%의 학생이 일반학교로 진학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니 해군참모총장, 신형 잠수함 보유 필요성 강조**

Laksamana 인니 해군참모총장은 향후 인니가 잠수함을 구매한다면 이웃나라가 보유한 기종보다 신형 장비를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참모총장은 인니 해군은 적어도 호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과 동급의 잠수함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현재 베트남이 6대의 러시아제 잠수함을 구매하려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말린은 이미 4대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동향

● **선거관리위원회(KPU), 국회 의석 배분 재검토**

Andi Nurpati 인니선관위(KPU) 위원은 현재 선관위가 국회 의석배분과 관련한 제 3차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거감독원(Bawalslu)와 교차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 위원은 선관위가 일부 지역 재검표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북부수마트라의 남부니아스 선거구나 바탐시 선거구, 람뽕의 락랑바왕 선거구의 지역은 여전히 현재의 재검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현재의 최종 판결 이후에 국회 의석배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신임 국회의장, Taufik Effendi 현 행정 개혁부장관 거론**

다수당인 민주당 중앙고문위원회 의장인 SBY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있는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여러 인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중 Anas Urbaningrum 민주당 중앙대표위원회 정치분야 의장, Marzuki Alie 민주당 사무총장, Hayono Isman 민주당 중앙고문위원 그리고 Taufik Effendi 현 행정개혁부 장관겸 민주당 중앙고문위원 등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 관계

● **대우조선, 인니 해군 잠수함 창정비**

Laksamana 인니 해군참모총장은 인니 해군의 KRI Naggala 402 잠수함이 한국에서 창정비를 받게된다고 밝혔다.

동 잠수함은 다음달(9월) 중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며 한국의 대우조선(Daewoo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Co Ltd.)에서 총 22개월여 간의 창정비를 받게된다.

한국의 대우조선은 이전에도 인니 잠수함을 창정비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창정비의 결과는 매우 좋아 1970년대의 잠수함이 1990년대의 기술로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인니 해군은 2011년도에 2대의 잠수함을 추가 구매하려 하고 있으나 어떤 종류의 잠수함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국방부의 결정은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 관계

● **인니,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세가지 이유**

Sudrajad 주중국인니대사는 인니와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그 세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2008년 기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GDP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중국의 GDP는 4.4조 달러에 육박했으며 2009.7월 현재 2,132조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현재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국외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내 원자재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에 생산기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대사는 조만간 중국과 인니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의 시행을 위한 Plan of Action에 서명할 것이며 특히 산업분야의 협력이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니, 싱가포르 부동산 분야에 투자 증가세**

인니 투자자들은 싱가포르 부동산 업체들에게 매우 훌륭한 고객이다.

현재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점유율은 13%이며 인도네시아는 말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투자국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점유율은 27%였으며 이중 31%는 인도네시아 투자자가 차지한 바 있다.

싱가포르 부동산 가격 역시 2007년을 정점으로 현재 하락한 상태이나 2010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무없는 산

엄마와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두 자매 진과 빈. 어려워진 형편 때문에 홀로 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진 엄마는 진과 빈을 지방에 사는 고모에게 맡기고 아빠를 찾으러 간다. 하지만 고모는 신세한탄을 하며 술만 마실 뿐, 두 자매에게 무관심하기만 하다. 엄마가 떠나던 날, 진과 빈은 돼지 저금통이 짝 차면 돌아온다는 엄마의 약속에 메뚜기를 구워 팔고 큰 동전을 작은 동전으로 바꿔가며 조금씩 저금통을 채워나간다. 저금통이 짝 차던 날 약속과 달리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얼마 뒤 두 자매는 다시 시골 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되는데...

모두에게 짐만 되는 진과 빈, 이 작은 소녀들이 머물 곳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애자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대한민국 대표 청춘막장 스물 아홉 박애자! 고등학교 시절 '부산의 톨스토이'로 이름을 날렸던 박애자. 소설가의 꿈을 품고 서울로 상경했지만 고리짝적 지방신문 당선 경력과 바람둥이 남자친구, 산더미 같은 빚만 남은 스물 아홉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갑갑한 상황에서도 깡다구 하나는 죽지 않은 그녀의 유일무이한 적수는 바로 엄마 영화!

눈만 뜨면 '소설 써서 뻥스 한 장이라도 사봤나!'고 구박하는 엄마에게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던 애자는 오빠의 결혼식에서 상상초월의(?) 이벤트를 벌이고, 결혼식은 이수라장이 된다. 통쾌한 복수를 마치고 콧노래를 부르며 귀가하던 그녀에게 영화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오고,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에겐 더욱 놀랄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Black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었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8살 소녀 '미셸'. 아무런 규칙도 질서도 모르던 '미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한 그녀의 부모님은 마지막 선택으로 장애아를 치료하는 '사하이' 선생님을 부르고 그에게 그녀를 맡기게 된다. 그녀가 집에서 종까지 단 채 동물처럼 취급 당하는 것을 본 '사하이' 선생님은 '미셸'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아무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녀에게 말과 소리 그리고 단어 하나 하나를 수화로 가르치기 시작한다. 포기를 모르는 그의 굳은 믿음과 노력으로 끝내 그녀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그녀를 세상과 소통하게 해 준 마법사 '사하이' 선생님은 세상에 첫 걸음마를 내딛 '미셸'의 보호자가 되어준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미셸'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사하이' 선생님은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그녀 곁을 떠난다. '미셸'은 '사하이' 선생님을 애타게 수소문하는 한편, 그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District 9

20년 전 남아공 상공에서 우주선이 멈추고 외계 생물체인 프론이 지구에 살게 되면서 점점 프론의 난폭함으로 인해 다국적 연합 MNU가 강제이주 시키려는 과정에서 외계물체에 감염된 비커스와 지구를 탈출하려는 외계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Coco avant Chanel

가수가 되고 싶고, 배우가 되고 싶었던 코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녀의 운명이 '샤넬'을 탄생시킨다.

가수를 꿈꾸며 카페에서 춤과 노래를 즐기던 재봉사 '샤넬'은 카페에서 만난 '에티엔느 발장'을 통해 상류 사회를 접하게 된다. 코르셋으로 대표되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귀족사회 여성들의 불편한 의상에 반감을 가진 그녀는 움직임이 자유롭고 심플하면서 세련미 돋보이는 의상을 직접 제작하

기에 나선다. 그러던 중, '샤넬'은 자신의 일생에서 유일한 사랑으로 기억되는 남자 '아서 카펠'을 만나게 되고, 그녀만의 스타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샵을 열게 되는 데...

전 세계 여성들의 영원한 로망,

'샤넬'의 감춰졌던 비밀스런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진다!

무지개

저자 요시모토 바나나 | 역자 김난주 | 출판사 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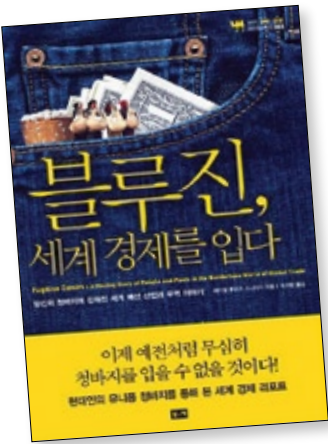


순수하고 아름다운 섬 타히티를 닮은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무지개』. 세련된 글쓰기로 우리 시대의 감수성을 대변하는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가 남태평양의 화산섬 타히티를 여행하고 쓴 작품이다. 라틴아메리카 여행을 바탕으로 쓴 소설 <불륜과 남미>와 마찬가지로 요시모토 바나나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타히티의 자연과 이국적인 남국의 강렬한 색채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일러스트와 컬러 사진들, 그리고 행복을 찾기 위해 몸부림 치는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요시모토 바나나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보여준다. 요시모토 바나나는 삭막한 도시 생활을 반성하고 위대한 치유의 힘을 지닌 자연을 경외하며,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삶을 통찰한다.

블루진 세계 경제를 입다

레이철 루이즈 스나이더 | 역자 최지향 | 출판사 부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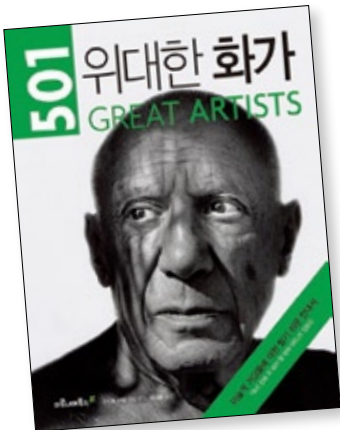


한 벌의 청바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블루진, 세계 경제를 입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젊음과 실용을 상징하는 ‘만국 공통 의상’ 청바지가 몇 개국에 걸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빌어, 어느 공장에서, 어떤 기계로 생산되는지를 꼼꼼히 따져 봄으로써 어마어마한 세계화의 물결이 만들어 낸 삶의 변화에 적응하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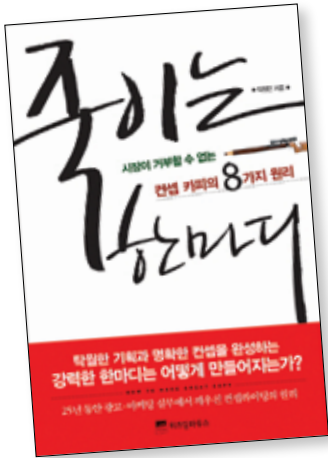
이 책은 국제 경제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통계와 이론을 들먹이기 보다 청바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목화를 채취하는 노동자부터 이탈리아의 원단 제조업자, 뉴욕의 일류 디자이너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청바지 한 벌에 담긴 국제 경제 시스템, 자유 무역의 논리와 모순, 노동자 인권, 세계화된 시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오염과 공정 무역 등에 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501 위대한 화가

저자 스티븐 파딩 | 역자 박미훈 | 출판사 마로니에북스



미술계 거장들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서 『501 위대한 화가』. 화가, 조각가, 혼합매체 미술가, 포토몽타주 작가, 설치미술가 등 501명의 미술계 거장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미대 교수인 스티븐 파딩이 편집하고 미술 평론가들과 미술사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팀이 집필하였다. 시대를 거치면서 등장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통해 천년이 넘는 기간동안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미술의 전반적인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죽이는 한마디 - 시장이 거부할 수 없는 컨셉 커피의 8가지 원리

저자 탁정언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매일 사표 쓰는 남자>, <기획의 99%는 컨셉이다>, <컨셉의 연금술사>의 저자, 탁정언이 25년 동안 25년 동안 광고·마케팅 실무에서 깨우친 컨셉라이팅의 원리를 공개한 책.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죽이는 한마디에 숨겨진 원리를 생생하게 밝혀낸다.

본문은 저자가 초보라이터 시절부터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품고서 25년 동안 터득한 것들을 꼼꼼하게 집필해 수록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8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원리는 사례->원리->근거->지식->따라 해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단정형인 '인생은 쇼다', 충돌형인 '순결한 창녀', 부정형인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등 다양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들어 꼼꼼하게 분석하였다.



19번째 아내.

저자 데이비드 에버쇼프 | 역자 노태복 | 출판사 리베르

『19번째 아내』는 미국의 주목 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비드 에버쇼프가 쓴 소설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19세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과거 부분'과 살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추리소설 형태로 구성된 '현대 부분'이다. 신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부모에게 버려진 주인공 스콧이 아버지를 죽인 혐의를 받게 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살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지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합리와 모순, 그리고 탐욕과 억압의 실체에 직면한다는 이야기이다.



지식의 쇠퇴 - 오마에 겐이치의 21세기 집단지성론

저자 오마에 겐이치 | 역자 양영철 | 출판사 말글빛남

이 책에 따르면 지식의 쇠퇴는 좁은 시야 때문에 일어난다. 현대인의 젊음이란 아니라 모두들 자신의 주위밖에 보지 않으며, 그 결과 사고의 정지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분수를 계산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력 저하도 눈에 띄게 지적된다. 그리고 하류사회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하류사회를 형성하는 젊은이들이 직업이나 공부에 대해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주위 반경 3m이내의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r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관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딤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버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글라빠가당)	471	804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729	0211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	-----	------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Kris Kim 7279 1555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짜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시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삐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삐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시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590 / 021-98202086
0812-19285578 / 085217730003
email: inepark@indosat.net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Life style,
Modern & Minimalist, Italian Black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힛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강(One Pacific Place)	000 0000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하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빔)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본가라와피)	546	4531
에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	------	-----------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	-----	-----



자판기 판매 및 임대 (Mr.박)

HP. 0815 7432 7769
Esia. 021) 9940 9200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파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향(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롱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9월 공지 사항



금식월 유의사항

- 8.22(토)부터 라마단 금식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동포여러분께서는 음주, 가무 행위 등을 자제하여 한국인이 현지 관습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2002년 이래 금식월을 전후하여 테러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대사관 관세관 업무 안내

- **통관애로사항지원, 관세관련상담, 민원해결 지원**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품목분류 등 관세제도 상담
 - 수출입 시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마찰 해소 지원
 - 특히 조정관세부와 관련 인니 세관당국 간 조정역할 수행
- **한-아세안 FTA 활용제고 지원**
 - 원산지 규정, 양허세율, 특혜통관제도 등 상담
 - 원산지 증명서(C/O) 발급관련 애로해소 지원 및 상담
 - FTA 특혜통관 시 애로·마찰해소 지원 및 FTA 비즈니스 모델 상담
- **기타 관세 및 한-아세안 FTA 활용 관련 애로 및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향후 한인회, KOTRA, 한인 상공회의소, 통관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예정 (「현지 통관협의체」 구축, 설명회 개최 등)
- **연락처**
 - TEL : 62-21-520-1915
 - HP : 0811-993-1325
 - FAX : 62-21-525-4159
 - E-mail : leeds@customs.go.kr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사(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1)520-1915

○ 핸드폰 : 0811-183-3164

○ E-mail : jkt_kimhoil@msn.com

인니문화연구회 문화탐방

167회

일시 : 9월05일

장소 : 뽀팍 (등산로)

168회

일시 : 9월12~13일

장소: BOROBUDUR 에 대한 집중적인 탐방

연락처 : 신유희 : 0818,708-228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9월 르바란 성수기를 맞아 대한항공에서 다음과 같이 서울행 추가편을 운항합니다.

변함 없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대한항공은 교민 여러분이 앞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르바란 추가운항편

편명	운항일	기종	출발	도착		
KE626	9.17~9.19	772	자카르타	23:55	인천	08:55*1
	9.26~9.28					
KE625	9.17~9.19	772	인천	17:50	자카르타	22:50
	9.26~9.28					

기존운항편: 스케줄 변동 없음

편명	운항일	기종	출발	도착		
KE628	매일	772/744	자카르타	22:05	인천	07:10*1
KE627	매일	772/744	인천	15:45	자카르타	20:45

Garuda Indonesia



가루다인도네시아가 2009년 7월부터 자카르타-인천 간 직항노선을 선보입니다. 가까운 여행사나 24시간 콜센터(080418078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루다항공 하계 운항편

노선	항공기명	출발 (현지시각)	도착 (현지시각)	운항일
자카르타 - 인천	GA 898	23:25	08:30 (익일)	화,금,일
인천 - 자카르타	GA 879	10:35	15:35	월,수,토

24 hour



www.garuda-indonesia.com

0 804 1 807 807

or (021) 2351-9999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18년간의 변함없는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아시아진주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특별할인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행사기간 : 2009년 8월 18일 ~ 9월 19일 까지



-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배달가능)
-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내 몸이 가장 작고 여렸을 때

유모차 안에서 손 번쩍 치켜 든 채 안아 달라고 하는 10개월 된 아기, 옆 집 아주머니께서 “엄마 살아 계시면 외손이라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시며 주변에서 좋은 분을 애써 찾아 소개해 주셨던 이래, 우리 ‘윤중이 아줌마’께서는 그앨 7살 되도록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 주셨다.

매일매일 뽀송뽀송하게 목욕 시키고 먹이고 입혀 주시며 깔끔하게 돌봐 주시고, 하루 걸러 직장 나가는 아저씨가 시간날 때마다 업어 주시는 등 온 가족의 귀염둥이로 티없이 자라게 해주신 분,

재개발로 문정동으로 이사, 2시간이나 걸려 오셔서 동생 정수도 3살까지 돌보아 주신 분.

그만 돌연한 시어른들과의 합가로 윤중이아줌마 계셔도 너무 힘들어 그만 두심에 두 아이들은 유치원으로~놀이방으로~ 나 역시 어른들 모시고 살아 내기에 정신 없었고, 그래도 세월은 흘러 수년 전 윤중이 한일고 다닐 때 여름 방학 휴가 중 독산동 집으로 찾아 뵈니, 윤중이 좋아하는 음식은 죄다 만들어 내 놓으셨다.

떡볶이, 닭찜, 불고기, 갈비~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찰밥과 김치찌까지도....

둘째 정수가 대학 들어 가면 한꺼번에 시간내어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찾아 뵈려 했는데 그도 여의치 못하고 정말 오고 싶어하셨던 윤중이 대학 졸업식에도미처 초대 못 하고이면 6월 30일 소위 임관식엔 모실까 싶었는데 그도 여의치 못 했다.

사실 그 애 첫 월급으로 제일 먼저 빨간내복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 그저께야 붉은빛 모시메리 내복과 윤중이의 정성이 들어 간 아름다운 거짓말 책 1권을 택배로 부치려 묶어 놓으니 이제야 다 챙긴 듯 후련했다.

막부치기 전살짝 들춰 본 책 안의 메모!

-내 몸이 가장 작고 여렸을 때 가장 따듯하고 든든한 나무가 되어 주셨던 분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청정원

햇살담은 **햇담**

